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요한복음 8:31-32

존 무어 지음 / 정명섭 옮김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성경 공부 안내서

존 무어 지음 / 정명섭 옮김

World Video Bible School®

www.wvbs.org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성경 공부 안내서)

제작 및 출판 | 월드 비디오 바이블 스쿨(World Video Bible School)
25 Lantana Lane
Maxwell, TX 78656-4231
USA

협력 및 배포 |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Church of Christ Mission)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200-1
02) 2607-0645 | <http://christ.or.kr>

Copyright © 2011 by World Video Bible School®

저작권 등록 필. 출판사의 허락 없이 이 책의 어떤 부분도 어떠한 형태로든 재가공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강의, 개인적인 공부, 전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수량의 사본을 전자 문서가 아닌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사 및 기타 본 교재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월드 비디오 바이블 스쿨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주로 사용한 성경 본문은 개역개정판(제4판)이며, 새번역과 한글 킹제임스흠정역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반점(.)과 온점(.) 등 부호를 삽입했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꺾쇠 안에 짧은 설명을 넣었습니다.

한글판 1쇄 | 2011년

이 책은 저자가 DVD의 내용을 보완하고 확장하여 만든 성경공부 안내서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DVD 초판은 미국에서 2006년 1월에 발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진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글 자막을 입힌 동영상 보고 싶으신 분은 BCC 전자도서관(lib.bible.kr)을, 영어판 및 미국수화판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www.searchingfortruth.org를 이용해 주시고, 영어판이나 스페인어판 DVD가 필요하신 분은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christ.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판 DVD는 더블 레이어로 제작되었으며 영어 자막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이 책을 드립니다.

책 머리에

성경책보다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을 살펴보아도 성경보다 뛰어난 책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전서 안에 묶여 있는 66권의 책 속에는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은 모든 것을 아는 완벽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성경책 속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하늘에서 본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는 대속(代贖)과 죄 사함과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맞물려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 이야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로마서 1:16). 성경에서 얻는 지혜와 그 안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개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우리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해야, 의로운 길을 어떻게 쉼서 좋게 휘두를 것인가 하는 문제, (비유 등과 같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 성경에 담겨 있는 진리를 온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소망과 진리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술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진보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의 진보가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를 대체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복음 전파 방법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을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고 그리스도 신앙과 관련된 참된 가르침으로 이끄는 일에서 문제가 되어 온 것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성경 말씀과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교회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배를 타고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심부름꾼을 통해 서신을 보냈던 것처럼) 가용한 방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보급 방법 그 자체의 힘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004년 가을,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영어판 비디오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품었던 뜻은 (보통 사람 상당 수가 개인적인 1대1 성경 공부를 꺼리는 상황에서)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물을 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진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음—옮긴이.]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DVD가 점점 더 많이 보급됨에 따라 비디오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마음 속에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자 형태의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책자 형태의 교재에는 성경 공부를 위한 질문과 함께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추가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은, 비디오 프로그램에 담긴 내용을 꼭 보아야 할 사람들 중에는 (구치소, 감옥, 그리고 몇몇 나라 등과 같이) 비디오를

활용할 수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하다 보니, 비디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과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독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쇄물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안에서, 곧 비디오 교재의 자매편입과 동시에 ‘독립된’ 책자로서 전도와 영적 성장 촉진에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이 책은 그러한 필요의 산물입니다. 비디오 교재의 내용을 장면마다 한 마디 한 마디 받아 적은 대본은 아니지만,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비디오 교재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DVD를 시청하면서 이 책을 함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디오의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이 책의 내용 가운데는 필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책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말씨나 어법은 글을 쓸 때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문체가 적절하지 못하고 문학적으로 단아하지 못한 경우를 이 책 여러 곳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필자가 처음에 글을 쓴 의도는 비디오 촬영 때 쓸 대본을 작성하는 것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자체의 성격에 따른 제약과 필자가 지닌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제약을 독자가 뛰어넘기를, 그리하여 이 책에 담긴 내용 중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이 지니는 숭고한 진리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설정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 손에 쥐어 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책자 형태의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를 발간함으로써 그러한 목표 달성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책자가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영어로 읽거나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이 교재를 접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책 영문판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영어판 비디오 내용을 한 마디 한 마디 받아 적은 대본이 얼마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대본을 바탕으로 (영어권 청각 장애인을 위해) 영어 자막을 넣고 있고, 여러 언어로 된 DVD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빛진 자로서, 필자는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독자에게 맡깁니다. 필자가 소망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책에 담긴 내용에서 도움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책을 매개체로 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요한복음 8:32)—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를 말입니다.

2006년 12월
존 무어(John Moore) 드림

차례

제1장 - 진리에 관하여

5

제2장 - 창조주에 관하여

10

제3장 - 신앙에서의 권위 문제에 관하여

24

제4장 - 교회에 관하여

44

제5장 -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66

제6장 -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92

답 안

120



진리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진리에 관하여

진리란 무엇인가?

여러 해 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 장례식을 집전했고 여러 묘지에 가 보았습니다. 장례식을 집전하거나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필자의 머릿속에 새삼 떠오르는 생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1분에 107명이 죽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죽는 사람이 153,000명이나 됩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매일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늙은 사람에게, 아주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김 없이 찾아옵니다. 삶을 지속하기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죽음 너머에도 삶이 존재할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삶일까요? 천국이 존재할까요? 지옥이 존재할까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더 나아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 온 방식이 죽은 뒤에도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았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영원히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사람의 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14절에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태복음 7:13-14).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지요? 생명을 찾는 사람의 수는 ‘적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택할 사람은 ‘많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소수의 사람’에 속하는지, 아니면 ‘다수의 사람’에 속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죽은 뒤에 ‘어디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게 될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나요?

이보다 더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태복음 7:21-23).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 만약 내가 오늘 죽어 예수님 앞에 선다면, 그 분께서는 나에게 무어라고 하실까?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나를 천국으로 맞아 주실까? 나는 이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았는가? 나에게는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의문점이 남아 있지 않은가?

죽음 뒤의 삶에 의문점을 가져본 적이 있는 독자라면, 이 땅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 보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라든가,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처음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류는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해 왔습니다. 철학자, 신학자, 화학자, 엄마·아빠, 목수, 변호사 모두가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릇된 답변이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여러 답변 가운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매우 혼란스럽고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답변이 주어졌지만 그 내용이 서로 달라 보일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참된’ 대답은 무엇일까요? 어떤 답변이 ‘옳은’ 것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믿음’과 ‘삶의 방식’이 사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리’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의구심에 싸인 채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 위를 걸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갖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답변은 의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격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성경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진리에 관하여 세 가지 점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무엇이든 진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진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실재(實在)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진리에 대해 들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에 찬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진리는 ‘알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진리는 죄에 얽매인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한복음 8:34). 독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까? 돈에, 술이나 다른 약물에, 혹은 음란물 등에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삶이 분노와 질서와 증오와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그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의롭지 못한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릇된 종교적 관행과 사람의 전통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3절과 마가복음 7장 1~13절에 보면, 1세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전통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종교적 관행과 의례와 의식에 따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은 일들로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러한 의식과 전통은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부담을 지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의식과 전통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바리새인의 전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교리]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람이 만든 종교적 전통과 의식에 얽매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가르침과 계명이 족쇄처럼 발목을 잡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신 일을 하도록 누군가가 요구하고 있나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온갖 종류의 짐으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 더 이상 불확실, 의심, 두려움, 좌절 등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든 그릇된 종교적 관행의 형태로 나타나든, 죄는 진

정 그 사람을 포로로 삼아 노예로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한 행태의 아비인 사탄(요한복음 8:44)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우주의 절대적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진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분만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우리는 지금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진리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매우 값진 물건과도 같습니다. 구약성경 기(록)자 가운데 한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야’ 합니다(잠언 23:23). 성경에 드러나 있듯이 진리는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통해 우리는 진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음을 배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9절에서는 진리에 순종해야만 영원한 벌을 피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진리에 관하여

인생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의 육체, 아주 늙은 사람의 육체,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육체가 전세계의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고도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리를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1초의 덤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70세,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구가 존속하는 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이곳이 땅 위에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과 16절 말씀에 따르면 그 심판의 기준은 복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의거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나는 진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진리를 찾았다는 걸 내 안에서 느낄 수 있어.' 필자는 그러한 생각이 옳기를

바랍니다. 독자가 '이미' 진리를 찾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유념해 주십시오—진심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순종하기 전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매우 종교적이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디모데전서 1:15).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는 대목을 접합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행동했지만, '진심에서 비롯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아주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면서 점검해 본 적은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참된 가르침을 찾아 떠나는 이 여정에 필자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진리란 무엇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평균적으로 매일 몇 명이 사망하는가? _____명
2. 마태복음 7:13-14에 따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의 수가 많을 것인가, 적은 것인가? (많음, 적음)
3. 마태복음 7:21-23과 관련하여 답하십시오.
 - 1)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모두를 구원하실 것인가? (예, 아니오)
 - 2) 종교적인 사람들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 (예, 아니오)
 - 3)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_____의 _____을/를/대로 _____(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
4.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는가? (예, 아니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교리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태복음 15:9).
5. 요한복음 8:31-32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_____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6. 진리는 우리를 _____ (으)로부터, _____
_____ (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의 _____ (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7. 요한복음 14:6과 관련하여 답하십시오.

1) 진리는 _____ 안에서 찾을 수 있다.

2)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예, 아니오)

8.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진리에 순종함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베드로전서 1:22).

9.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가? (예, 아니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데살로니가후서 1:7-9).

10.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각각의 영혼이 _____ (곧 복음)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로마서 2:2).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로마서 2:16).

11.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진심으로 고수했지만 진심에서 비롯된 _____ 을/를 범하고 있었다.

12. 진심만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가. 지금껏 진심으로 믿거나 행하던 일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교재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될 경우 그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예, 아니오)

나. 마태복음 7:21-23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창조주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우주라든가 지구라든가 경이로운 인체를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우주와 지구와 인체는 지적인 창조주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는 ‘어떤 신(神)일까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 진정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분께서는 피조물에 대해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서론

삶은 해답을 찾아 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미래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야말로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 오를 때 그 출발점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가 아닐까 합니다. 이곳 지구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필자는 숲 속을 거닐거나 시골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복잡한 고속도로와 시장을 벗어나서 말이지요. 자연 속에 있노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치게 되는 곳이 그러한 자연 속일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은 꼭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창조주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는 이번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1. 하나님에 관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3. 하나님에 관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 신학자 등이 절대적인 신(神)의 존재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들이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하여 자연에 나타난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18세기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팔레이]는 자연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 현상은 그저 주의 깊게 들여다 보기만 하면 된다. 주의 깊게 들여다 보면 자연 현상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위대함에 놀라게 된다.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사실을 통해 지적인 능력을 지닌 절대적 존재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적인 생명체 안에 생명의 유지 및 번식을 가능케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보살피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우리 주변 사방에 그러한 유기체가 둘러싸고 있다. 각각의 유기체를 이루는 부분 부분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흥미로운 한편, 각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 볼 때, 자연사(自然史)를 통해 지적인 창조주의 존재 증거를 제시하는 일만큼 범위가 넓은 주제는 따로 없다(《자연신학》 중에서. 인용 부분 번역은 이 책 옮긴이의 것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자연 속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증거가 자연 속에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로마서 1:20).

위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대해 그 누구도 합당한 핑계를 댈 수 없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그분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을 잘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창조주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 점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詩人) 없는 시가 있을 수 없고, 건축자 없는 건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적(知的) 설계자가 없이는 자연에 존재하는 설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포 내의 복잡성, 지구 대기 상태의 복잡성, 행성들 사이의 거리 등 모든 것이 일정한 목적 하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몸 속의 신경계를 보면 수십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많은 세포가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몸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신경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 수준에서 보면 하나의 세포 안에 이온 통로와 전위 의존적 통로가 있고 막전위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위차는 한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즉 신경 충동을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세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유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생물학적 코드로서, 이를 통해 세포는 스스로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

창조주에 관하여

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생물학적 코드가 담겨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네온등 불빛’과도 같은 것이 선명하게 창조주, 곧 지적 설계자를 가리키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브래드 해럽 박사
(신경생물학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주변에 펼쳐진 세계를 통해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셈입니다. “바로 여기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펼쳐진 세계는 하나님에 관해 어떤 점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주변에 펼쳐진 세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성을 지닌 최고의 건축자이며 이 복잡한 우주를 창조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존재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주변 세계를 통해 우리는 경이로운 유기체와 복잡하게 설계된 계통 등을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주변 세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묘한 피조물을 보며 감탄할 수는 있지만 나무를 관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어떤’ 형태의 것을 관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이 나 지옥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발 밑에 펼쳐진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 받는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잠깐 복습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하나님에 관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윌리엄 페일리[=팔레이]의 논지는 _____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로마서 1:20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합당한 _____ 을/를 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없이 제시하셨기 때문이다.
3. 어떤 대상의 내면에 설계가 존재하는 경우 _____ 인 _____ 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4. 우리 주위를 둘러싼 자연 속에 존재하는 증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성을 지닌 _____ 의 _____ 로서 이 복잡한 우주를 창조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존재라는 사실을 배운다.
5. 산에 가서 _____ 을/를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 그것은 _____ 에 존재하는 ‘어떤’ 형태의 것을 관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6. 자연 속에 드러난 증거를 관찰하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예, 아니오)
7. 자연을 관찰하기만 하면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가? (예, 아니오)

8. 풀, 돌, 나무 등을 분석하기만 하면, 구원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가. 아래의 성경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6).

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가. 세포의 복잡성이라든가 우주의 복잡성 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나. 주변 자연 속에 있는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만으로는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다룬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 (고린도전서 2:11-13상).

위에 인용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음을 배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연 세계를 관조하거나 인간 내면을 탐색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에 인용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려 주셨음을 배웁니다. 성령님께서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계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은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책은 ‘경(經)’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이 어디서 온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 성경책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감동’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가 갖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사용한 언어인 그리스어에 보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오프뉴스토스’는 합성어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뜻하고, 뒷부분은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모든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척 호너
(성경 강사, 전도자)

창조주에 관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령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메시지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성경책은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책은 죽은 글자들로 된 책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직접 전달된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키이스 모셔 1세
(성경 강사, 전도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개역개정 베드로후서 1:20-21).

☞ ❏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킹제임스흠정역 벵후 1:20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성경책을 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책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복습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주된 질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성경책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예, 아니오)
2.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예, 아니오)
3.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일은 하나님의 영께서 하신다. 성경책은 짧게 _____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 디모데후서 3:16-17에 따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예, 아니오)
5. 우리는 _____ 을/를 읽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6. 우리말 성경에서 '감동'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에 담긴 의미는 _____ 계서 _____ 을/를 _____ 는 뜻이다.
7. 성경책은 _____ 계서 만드신 것이다.
8. 베드로후서 1:20-21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이 인간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가.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까? (예, 아니오)

나. 하나님 말씀에 담긴 뜻을 알고자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가. 성경책은 어떤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길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책일 수 '없다'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생각을 '문자'의 형태로 인간에게 전달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에 관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관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군신(軍神)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지닌 아레오바고[=아레오파고스]에서 사도 바울이 한 연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의 아덴[=아테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곳에서 행한 연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먼저 바울이 그러한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난 즉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곧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드라[=리스트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을 다니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아테네]에 도착해 보니 그 도시는 이상 승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지극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나머지 다음과 같은 글자가 새겨진 제단까지 세웠습니다—"알지 못하는 신(神)께".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위해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다양한 철학자를 비롯하여 교육을 많이 받은 당

대의 지도층과도 마주했습니다. 아덴은 철학자들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정치, 문학, 학문 등을 강조한 것은 물론입니다. 바울은 (종교적·도덕적 재판이 이루어지곤 하던) 아레오바고에 서서 우주를 실제로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사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던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殿)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7:22하-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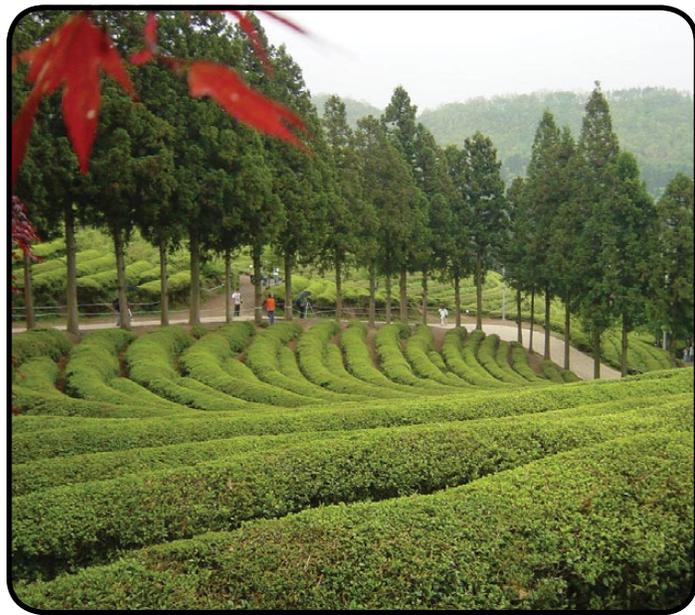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관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의 연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것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피조물과 이렇게 고도로 복잡한 우주가 단지 우

창조주에 관하여

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널리 알려지고 정립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했다 할지라도—바울이 연설 뒷부분에서 나중에 강조하는 것처럼—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헛된 방식으로 자기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아덴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이며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신 바에 따라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심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도록 합시다.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을 통해 바울이 한 말을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사도행전 17:26-29).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려준 말 속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국가가 명멸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 일에 관여해 오셨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되새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방 종교에서 믿는 신(神)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시며, 사람이 고안해 낸 바에 따라 그 형상이 정해지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께서는 영(靈)이십니다. 품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모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사람 모두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아버지’라는 용어에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B. J. 클라크
(전도자)

요한1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 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소속감을 느끼고자 갈망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갈망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소속감을 충족시켜 줄 대상'을 오랜 세월 동안 찾아왔습니다. 바벨탑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이름을 널리 알려 영예를 얻고자 했고, 부도덕한 목적 하에 힘을 합쳤습니다. 역사상의 다른 시대를 쫓 살펴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결여되어 있는 사랑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방치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려니 하는 생각에 그릇된 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신 건강 관련 분야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상담사, 심리학자, 정신병리학 전문가 등을 찾아 갑니다. 전문가들의 뒤를 쫓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해결책을 찾아 다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답은 사실 당사자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 점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 생명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사랑에 대해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답은 바로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스티븐 스프링거 박사
(전문상담사, 교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가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재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가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심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책하지 아니하셨지만] 이제에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사도행전 17:30-31).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언제고 심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질렀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에 대해 쓴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죄인 중에 괴수'조차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B. J. 클라크
(전도자)



창조주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갈랜드 엘킨스
(성경 강사, 전도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영원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7:30).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관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누가복음 13:3).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 마음가짐과 생각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마음가짐과 생각에 변화를 일으켜 회개할 때, 그리고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를 때, 그 사람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알프레드 워싱턴
(전도자)

회개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고 방식을 바꿀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지키기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방식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바탕을 둔 변화입니다.

키이스 모셔 1세
(성경 강사, 전도자)

회개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차이가 없습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자식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회개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31상)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느니라 (고린도후서 5:10-11상).

위에 인용한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된 방식과 생각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롭고’(계시록 15:3) ‘공정’(새번역 로마서 2:5)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을 주셔야 합니다. ‘공정하신’ 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자들을 징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판사가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판사가 의롭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그 판사가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창세기 18:25)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사도 요한이 묘사한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계시록 20:12).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1~12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모두 우리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커티스 케이츠
(성경 강사, 전도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일에 대해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여러분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능합니다.

참된 가르침을 찾는 여정을 통해 이번 장에서 배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피조물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주변의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충분히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알려 주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3.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하나님에 관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복음’이란 _____ 을/를 뜻한다.
2. 사도행전 17:22-26에 따르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 곧 하늘과 땅 모두의 주인이신가? (예, 아니오)
3. 사도행전 17:24에 따르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시는가? (예, 아니오)
4. 사도행전 17:30-31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_____ 해야 한다.
5. 사도행전 17:27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구와도 _____ 떨어져 계시지 않다.
6. 아래의 성구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_____ 이시다”고 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1서 4:8).

7.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3:3에서 말씀하시기를 _____ 하지 않으면 [벌]망하리라고 하셨다.

창조주에 관하여

8. 아래의 성경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 아니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9.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가? (예, 아니오)

10. 아래의 성구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말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 만국의 왕이시여, /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시록 15:3).

11.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12. 계시록 20:12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자신들이 한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가. 하나님께 헛되이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이번 공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회개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도 자신이 해 온 행동에 대해 자신 있게 아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 베드로후서 3:9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결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 뜻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따를 뜻'이 있습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창조주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마주 대하고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참된 가르침을 찾는 여정을 필자와 함께 계속하는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이라든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자신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르겠습니까? 참된 가르침을 탐색하는 과정인 이 여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도(道)를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제2장 되짚어 보기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이번 장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로마서 1:20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가? (예, 아니오)
2. 베드로후서 1:20-21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3. 고린도후서 5:10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_____ 앞에 서게 될 것이다.
4. 요한복음 3:16과 베드로후서 3:9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가? (예, 아니오)

요점 확인하기

1. 성경은 인간 이성의 산물에 '불과'한가? (예, 아니오)
2. 마음 속에 일어나는 느낌만 갖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 갖고 계신 뜻을 알 수 있는가? (예, 아니오)
3.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인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와 '요점 확인하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
-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음
-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음
-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알게 하셨음
-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심
-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심
-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임

깊이 있게 알아보기

아래에 실은 자료는 이번 장에서 다른 주제에 관해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실은 내용 가운데는 이번 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조주이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 인자(人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4).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 궁창(=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편 19:1).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시편 100:3).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殿)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사도행전 17:24).

우리 주 하나님이며, /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시록 4:11).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1. 창세기 1:1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가? (예, 아니오)
2. 시편 8:3-4과 19:1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거기 담겨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가르치는가? (예, 아니오)
3. 시편 100:3에 따르면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가?

4. 하나님은 '_____와/과 그 가운데 있는 _____을/를 지으신' 분이시다(사도행전 17:24).
5. 계시록 4:11에서도 하나님께서 _____을/를 창조하셨다고 했다.

창조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전지하심(모든 것을 아심)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야웨/주님]의 눈 앞에 있나니, /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잠언 5:21).

여호와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니], / 악인과 선인을 감찰 하시느니라(잠언 15:3).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이사야서 46:9-1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누가복음 16:15).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사도행전 1:24-25상).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브리서 4:13).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 잠언 5:21과 15:3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가? (예, 아니오)
- 이사야서 46:9-10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는가? (예, 아니오)
- 하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_____을/를 아신다(누가복음 16:15; 사도행전 1:24).
- 히브리서 4:13에 따르면 _____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난다.
- 히브리서 4:13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한 행동에 관하여 하나님께 _____을/를 해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전능하심(모든 것을 할 수 있음)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아오니[이다] (욥기 42:2).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편 33:6-9).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가복음 10:27).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브리서 11:3).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계시록 1:8).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못 하실 일이 _____고 했다(욥기 42:2).
- 하나님은 커다란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 “_____ 하시매 이루어졌으며, _____ 하시매 견고히 섰도다.”라고 했다(시편 33:6-9).
-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으로서는 _____ 하실 수' 있으시다(마가복음 10:27).
- 히브리서 11:3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실 때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질을 사용하셨는가? (예, 아니오)
- 계시록 1:8에 따르면 주 하나님은 _____하시다.



하나님께서서는 편재하심(모든 곳에 계심)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主)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열왕기상 8:27).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 주[님]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편 139:7-10).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게는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7:7-8).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 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사도행전 17:27).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굶주림]이나 적신[=혈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主)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5-39).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 열왕기상 8:27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말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늘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_____ 하지 _____ [=모시기에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 시편 139:7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_____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배운다.
- 마태복음 7:7-8과 사도행전 17:27의 가르침에 따를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되는가? (예, 아니오)
- 사도행전 17:27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는 가까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가? (예, 아니오)
- 로마서 8:35-39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예, 아니오)



하나님께서서는 전적으로 자비하심(모두에게 지극히 인자하심)

여호와[=야웨/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예레미야 애가 3:22-23).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1-3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

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디모데전서 2:3-4).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야고보서 1:17).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베드로 후서 3:9).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1서 4:8).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 하나님의 '_____ 와/과 _____'은/는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롭다(예레미야 애가 3:22-23).
- 마태복음 6:31-33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면서 그분을 찾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인가? (예, 아니오)
- 야고보서 1:17에 따르면 온갖 _____ 은 _____ 와/과 _____ 한 _____ 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 디모데전서 2:3-4과 베드로후서 3:9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가? (예, 아니오)
- 하나님은 _____ 이시다(요한1서 4:8).

알림 | '깊이 있게 알아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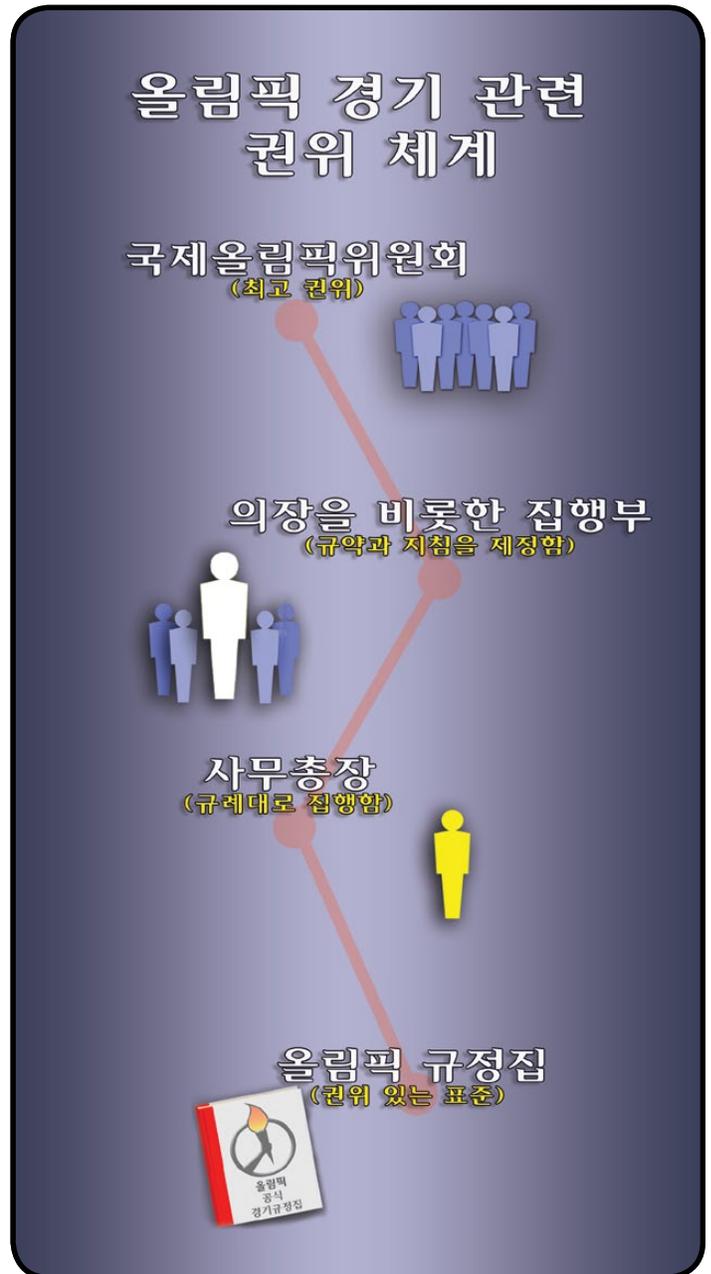
오늘날 신앙인들 사이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문제에 관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여러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말이 정확한 것일까요? 특정한 견해가 옳다는 결정을 누가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신앙과 관련된 규정은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서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일까요? 성경일까요? 교리집일까요? 신학 분야 대표가 모인 회의일까요?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서 권위는 누가(혹은 어디서)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신앙과 관련된 규례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 가야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서론

자기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이고 어디 가야 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두 가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시합이 벌어지는 경기장에서는 잘 정비된 규정집과 권위 있는 집행부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팀이 만나 경기를 치를 때, 양측은 미리 마련된 규정집의 내용에 동의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규정집은 권위를 인정 받은 개인이나 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한 것입니다. 정비된 규정 체계, 또는 정비된 권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이며, 이런 원칙은 운동 경기, 사회 단체, 학교 활동, 교회, 국가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권위를 인정 받는 집행부와 정비된 규정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정집과 아울러 권위 있는 집행부나 개인이 없다면 결코 경기를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년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거행되는 하계 올림픽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가국 대표 선수는 통일된 형태와 방식에 따라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권위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단일한 규정집의 내용에 따라 경기에 참여하기로 참가자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운영할 때는 이렇듯 표준이 되는 권위 있는 집행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구가 바로 국제올림픽위원회입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회원 가운데서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선출된 의장과 집행부는 규약과 지침을 제정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합니다. 또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 집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규정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집은 권위 있는 문서가 되어 각 경기의 경계를 설정하고, 규칙을 제정하며, 심판의 판정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결된 권위 체계와 규정집이 없다면 하계 올림픽 경기는 진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규정집이 없는 상태에서 혼란과 무질서만 있게 되겠지요. 합의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는 집행부와 규정집이야말로 올림픽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찰스 스미스
(심판)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하여

이제 그 어떤 운동 경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로 관심을 돌려 봅시다. 지금부터는 신앙 문제의 영역으로 방향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앙 생활에 단일한 권위가 존재하는가? 신앙 생활에 적용되는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문서 내지는 규정집이 존재하는가?”

교회에 적용할 규정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교회 조직 방식과 예배 형식에 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리집을 바탕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내린 결정을 참고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마음에 와 닿는 느낌’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적절한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뿔 수가 없고 분열과 불일치가 존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치와 동의를 이루기 위해서는—또한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대적 진리를 어떻게든 현실화할 수 있으려면—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규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에서 권위의 표준이 무엇인지 아는 일은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위란 무엇인가?
2. 신앙 관련 권위는 누구에게(혹은 어디에) 있는가?
3. 신앙 관련 권위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4. 오늘날에는 신앙과 관련하여 여러 권위가 존재하는가?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는 우리 여정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란 무엇인가?” 이 글에서 벌써 여러 차례 ‘권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영국에서 나온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권위’란 ‘복종하여 따르게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힘, 도덕적 또는 법적 우월성, 명령하거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사전 인용 부분 번역은 이 책 옮긴이의 것임. 이하 같음].

이러한 정의를 잘 반영한 예가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옵니다. 그 기사에서, (자기 종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한 로마 군대 백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마태복음 8:9).

위에 인용한 백부장의 말에 비추어 보면, 권위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과 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포함됩니다. 영어의 경우, ‘권위[authority]’라는 단어의 어근[author]에는 ‘저자(著者), 창시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시자란 (옥스포드 영어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거나 존재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창설한 사람, 어떤 것을 발명한 사람 등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권위’라는 말에는 아래에 나열한 것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내리거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 또는 힘
-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우월성
- 무엇인가를 창시하거나 창설한 이

그렇다면 신앙 문제에서는 권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신앙에서의 권위 문제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는 여정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에서의 권위는 누가(혹은 어디서)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권위란 무엇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른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규칙의 내용과 _____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2. 게임, 운동 경기, 모임, 학교 조직, 국가 등에서 표준 공인 규정, 곧 권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한가? (예, 아니오)
3.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권위’란 ‘복종하여 따르게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힘, 도덕적 또는 법적 우월성, _____하거나 최종 _____을/를 내릴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4.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고백을 한 사람들 사이에도 신앙 면에서 분열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5.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예, 아니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린도전서 1:10).

6. 권위의 표준에 대한 일치된 생각(예를 들어 신앙 관련 규정이 담긴 유일한 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일치된 생각)이 전제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일치가 가능한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 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 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궁극적 권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지닌 궁극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 가. 운동 선수와 코치, 그리고 참가 팀들이 규정집을 개정한다거나 특정 규정을 더하고 뺄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 나. 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조직을 구성할 때 어떤 사람들은 특정 신조를 안내서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대표자 회의의 결정 내용에 의지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느끼는’ 대로 주관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하여

신앙과 관련된 권위는 누구에게(혹은 어디에) 있는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규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신앙 면에서든 도덕적인 면에서든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빌라도가 던진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답변을 거부하시자 빌라도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와 힘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임스 메도우
(성경 강사, 전도사)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님이십니다. 인류와 모든 동물이 그분께, 그분의 규례에, 그분께서 반포하신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5~6절에서는 온 땅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그분의 집이며,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야 합니다.

벤 모즐리
(교수, 전도사)

예를 들어 여러분 손으로 직접 건축한 주택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짓고 여러분 돈을 들여 내부를 장식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집 ‘안에서’, 또는 그 집에 ‘대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주택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지은 집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제정한 규정을 허락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위한 규례와 지침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 집에 적용되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집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주라고 하는 위대하고 기묘한 피조물의 소유자이자 건축자로서 그것을 유지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 곧 권한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외에 또 누가 모든 피조물 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브리서 1:1-2).

위에 인용한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의 시대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조물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유[=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것에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포함이 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요한복음 17:1하-2).

위에 인용한 성경 구절과 앞에서 검토한 다른 성구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권세의 궁극적 원천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커티스 케이츠
(성경 강사, 전도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에베소서 1:19-23).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 곧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 예수님께서는 모든 통치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합니다.
-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는 그분 자신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권세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모든’ 권세

를 갖고 계십니다. 신앙 면에서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우주에 작용하는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이시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위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신앙의 권위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비 리델
(성경 강사, 전도자)

조금씩 되짚어 보기 신앙과 관련된 권위는 누구에게(혹은 어디에) 있는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우리를 지으신, 즉 ‘만드신’ 분이 하나님으신가? (예, 아니오)

여호와[=야웨/주]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 오히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편 95:3-6).

2. 아래의 성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늘과 땅의 주님, 곧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사도 행전 17:24).

3.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셨다. 그 땅 위에 사는 동안의 생활 방식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가? (예, 아니오)

4. 마태복음 28:18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신가? (예, 아니오)

5. 요한복음 17:1-2과 아래의 성구에 따르면 누가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는가? _____ (_____ 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노라] (요한복음 3:35).

6. 에베소서 1:19-23에 따르면 _____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권한, 곧 권위를 갖고 계신다.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하여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가.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로 믿으십니까? (예, 아니오)

나.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가. 내 돈을 들여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집에 대해, 또는 그 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우주로 ‘지으신’ 하나님께 적용한다면?

나.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지은 죄들을 회개하라고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다.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합당한 반응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7:30).



신앙 관련 권위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아니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운동 경기에 참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기에 참가하려면 적용되는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가하는 종목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이 누구이고 권위가 부여된 기관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를 지닌 인물 및 기관과 나 사이에 모종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어떤 방법으로 경기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한 규정이 위원회 임원으로부터 선수, 코치, 심판, 회원국 등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권위가 되심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경주에 임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제, 그분께서 제시하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규제와 계명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움직여’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일까요? 꿈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채워 주시는 것일까요?

과거 한 때 하나님께서 상당히 특별한 방식을 통해 인류에게 그분의 뜻을 전해 주신 적이 ‘있으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불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출애굽기 3:4). 꿈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창세기 31:11). 한번은 바벨론[=바빌로니아] 왕이 배푼 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 몸의 다른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사람 손만 나타나게 해서 벽 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적게 하셨습니다(다니엘서 5:5). 또 다른 경우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시켜 빌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민수기 22:28).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분의 뜻을 그런 방법으로 알리시는 것일까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2).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규례와 명령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글이 아닌 말의 형태로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30세 전후하여 시작하신 공생애(公生涯) 사역에서는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매우 공홀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은 때에 따라 공홀히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불경건한 행실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종교적 전통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체적인 명령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죄를 멀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양하게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맹세하지 말지니라”(마태복음 5:34).
- “원수를 사랑하라”(마태복음 5:44).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마태복음 16:6).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 “먼저 그[=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
-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니라”(마태복음 7:7).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태복음 7:13).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조심하라]”(마태복음 7:15).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누가복음 6:38).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 있는 말씀을 사람들은 존경과 놀라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어땠는지에 대해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마태복음 7:28-29).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은 참으로 ‘권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통해 사나운 폭풍을 가라앉히고(마가복음 4:39), 한센병 걸린 사람을 고치며(마태복음 8:3),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요한복음 11:4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요한복음 6:63).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뜻을 따르라고 죄인들에게 촉구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천국 자체를 존재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권위에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과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땅 위에 계신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권위를 행사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방법으로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누가(혹은 무엇이) 신앙 면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원저자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라디아서 1:11-12).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도 요한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계시록 1:10-11).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 본 것을 적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신약성경 기(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적으라는 사명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하여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20-21).

위에 인용한 성경 구절, 유사한 여러 성구, 그리고 성경의 여러 다른 곳에서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기록을 한 결과, 우리는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명령,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규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척 호너
(성경 강사, 전도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행동을 다스리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신약성경은 주님의 권위가 담긴 문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신약성경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올림픽 경기 관련 권위 체계

국제올림픽위원회
(최고 권위)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
(규약과 지침을 제정함)



사무총장
(규례대로 집행함)



올림픽 규정집
(권위 있는 표준)



영적인 측면의 권위 체계

하나님
(최고 권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심)



성령님
(사도들에게 모든 진리를 드러내셨음)

성경책
(권위 있는 표준)



서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가 그 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곧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규례’, 곧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활히 여기시는 사람이 됩니다.

올림픽 경기 비유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 궁극적으로는 올림픽 규정집에 그 권한이 구현되는 방식에 다시 한 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 선수나 심판이 자기에게 허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올림픽 규정집을 참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권위 있는 기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공식적인 규정집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따라야 어떤 경기에도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려면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신약성경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3-5).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권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신격(神格)’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신격의 한 부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 받고 계십니다(마태복음 28:18).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어 사도들이 성경 기록하는 일을 이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경(經)’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규정집이자 안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 경기 규칙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책은 여러분과 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집입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규정에 따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적힌 규례들을 무시하거나 스스로를 다스리며 ‘달음질’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

려워함이다.” 우리 자신이 실격의 대상인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사용할 규정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음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요한복음 12:48).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의 말씀, 신약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말씀이 이 세상 끝 날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기록되어 신약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이러한 신약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권위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명백하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위를 드러내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유일한 근거로 인정하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례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와 인생에 관한 계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하여

조금씩 되짚어 보기 신앙 관련 권위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른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셨다(꿈, 불 붙은 떨기나무, 말하는 동물 등). 히브리서 1:1-2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예, 아니오)
2. 히브리서 1:1-2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_____을/를 통해 말씀하신다.
3.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는가? (예, 아니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永生)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2:50).

4. 마태복음 7:28-29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가? (예, 아니오)
5.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권위를 행사하셨지만 오늘날에는 _____된 말씀, 곧 성경책을 통해 권위를 행사하신다.
6. 베드로후서 1:20-21에 따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_____(님)의 지시와 안내에 따랐다.
7. 아래 인용한 성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계시를 _____의 (울)_____이라 부르기도 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멍을 성취하라(갈라디아서 6:2).

8.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에서 달음질을 할 때, 성경책이 경기의 _____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책의 규례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9. 고린도전서 9:27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가? (예, 아니오)
10. 요한복음 12:48에 따르면 심판 날에 _____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11. 아래의 성구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 아니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요한복음 15:3).

12. 요한복음 6:63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은 _____(이)고 _____(이)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삶에 대해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예, 아니오)

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특정 인물 또는 다수의 사람이 머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 아래의 성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부여한 네 가지 권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에베소서 1:19-23).



오늘날에는 신앙 관련 권위에 표준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규례를 담은 책이 성경책뿐인가?” 하는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의 권위 면에서 두 개 이상의 표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외에, 혹은 신약성경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권위의 기준으로 삼는 종교단체들이 있을까요? 신학자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성경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가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 여러 사람이 남긴 기록, 사람이 남긴 어록, 사람 사이의 합의를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는 이러한 사고 방식과 매우 비슷한 견해를 담고 있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그 중 한 권은 한 종교 단체에서 나온 《장정(章程)》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장정》은 [특정 교회]의 법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역사 상의 여러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한 회의의 결과이며, 그러한 단체들이 현재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장정》은 교회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법과 계획과 정책과 과정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장정》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에다가 다른 내용을 더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앙인들 사이에는 성경 외에 또 하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화된 일입니다. 성경만을 권위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입니다. 《신앙개조(信仰個條)》라는 제목이 붙은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교회에서 표준이 되는 저작물, 곧 경전은 교회 내에서 기록된 권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고, ‘투표를 통해 교회에서 신앙과 교리 면의 권위로 인정한 경전은 네 가지’라고 전제한 다음, 뒤이어 그 네 권의 책을 언급합니다. 성경책은 그 네 권의 책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 단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서적, 나름대로의 규례, 나름대로의 헌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런 책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성경책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칼 가너
(성경 강사, 전도자)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에서 신약성경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권위의 표준으로 사용하는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 신조집(信條集)
- 장정
- 신앙개조
- '다른' 경전
- 협약
- 신앙 고백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다른 권위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할 때 성경만 의지하면 되는 것일까요? 교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만 갖고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하기만 하면 알게 되는 것일까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질문들에 답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 교훈(가르침)
- 책망(잘못을 드러냄)
- 바르게 함
- 의로 교육함(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교육함)
-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교육함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한 것이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시대에 성령님께서 ‘추가적인 계시’를 주지 않으셨는가? 기록된 말씀과는 별도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드러내시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36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하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한복음 16:13).

위에서 인용한 성구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다.
- 사도들은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되었다.

사도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었다면, 오늘날에 추가적인 계시를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이란 ‘예외 없는’ ‘전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전체’가 전달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앙과 관련된 ‘모든’ 진리는 사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계시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자인 유다가 밝혔듯, ‘믿음의 도’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유다서 1:3). 믿음의 도는 1세기에 ‘부분적으로’ 전해지고 나서 여러 세기 후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전해졌다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모든 진리가 1세기에 계시되었기에, 어떤 다른 복음도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함으로써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라디아서 1:8).

여기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 생존 기간 동안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 면에서 ‘유일하게’ 표준이 되는 권위입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오늘날에는 신앙 관련 권위에 표준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른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기독교 신앙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이 아닌 어떤 것으로 성경을 대체하거나 성경 이외의 어떤 것을 추가하여 신앙에서 권위를 지닌 표준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예, 아니오)
2.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가? (예, 아니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3. 디모데후서 3:16-17에 따르면 교회 전통, 지침서, 신조집, 신앙 고백, 후기 계시 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4. 베드로후서 1:3에 따르면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_____와/과 _____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셨다.
5. 위의 3번과 4번에 답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경책 외에 ‘다른 책’이라든가 그 외의 다른 어떤 것을 신앙에 권위를 갖는 표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예, 아니오)
6. 요한복음 16:13에 따르면 1세기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_____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리라고 하셨다.
7. 사도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었다고 할 때, 오늘날에 무언가 새로운 계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예, 아니오)
8. 갈라디아서 1:8에 따르면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_____을/를 받을지이다.”라고 했다.
9. 유다서 1:3에 따르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_____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 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 아니오)
- 나. 오늘날에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 다. 지금까지 지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원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절차를 따르겠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 가. 디모데후서 3:16-17에 따르면, 성경은 다섯 가지 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다섯 가지 측면은 무엇인가?
- 나. 왜 개인과 단체는 자기 나름대로 ‘권위를 부여하여’ 신앙 서적을 만들까?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하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발현되는 권위의 궁극적 원천이 되시며,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날에 종교적인 권위의 표준이 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책 자체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두 가지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는 과정에서, 성경 전체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필자가 오직 신약성경만을 권위로 인정하고 있음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필자가 구약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심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성경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경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약성경과 함께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구약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로마서 15:4).

그런데 성경책의 앞부분을 왜 구약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구약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따라야 하는 법도 일까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분 중에서도 구약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 ‘옛 구[舊]’자를 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없다거나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구계약’과 ‘신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계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던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지요(유대인에게만 적용되던 율법에 대해서는 신명기 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그것이 주어지던 당시 시내산에 있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그리스어 ‘언약’에는 ‘유언’이라는 뜻도 있지요).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 예레미야서 31장의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니 페트리로 박사
(구약학 및 유대학 교수)

요약해서 말하자면, 구약이 ‘옛 언약’인 이유는, 그것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율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한시적인 법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약의 길을 예비하면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갈라디아서 3:24-25).

우리는 더 이상 몽학 선생, 곧 훈육 선생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 신임을 얻은 노예가 몽학 선생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의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몽학 선생의 임무 가운데는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갔다 오는 일,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을 돕는 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아이에게는 몽학 선생이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즉 더 이상 몽학 선생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보면, 구약성경은 몽학 선생, 곧 훈육 선생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류에게 성인이 될 준비를 시킬 책임을 안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앙 체계를 향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그러한 체계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법, 곧 그리스도의 법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성경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영향력 아래 있지도 않다는 말일까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옛 법의 일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옛 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5:17에 따르면, 여기서의 폐지는 파괴가 아닌 완성을 뜻함—율건이] 십계명은 한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맡던 희생 제사, 성전에서의 예배, 분향, 특별한 절기 등과 같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인류를 준비시킴으로써 메시아를, 그리고 그분을 통해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갖고 오셨을 때 옛 법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옛 법이 사라져 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주어진에 따라 기존 것이 '옛날'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히브리서 8:13).

그렇다면, 구약이 낡은 것이 되어 버렸으니 오늘날에는 간음을 해도 되고,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아홉 개는 신약성경에도 나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을 지킵니다. 이 만찬은 마태복음 26장 26~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따르면 1 세기의 제자들은 매주 첫 날에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안식일 조항을 제외하고 십계명 가운데 아홉 개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그 아홉 개의 명령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 곧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맺어진 언약'은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 31장을 비롯한 관련 성구에서) 새로운 언약이 제정될 시기에 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바로 그 언약이 설립되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때입니다. 구약은 폐하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어떻게 다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아니오)
2. 로마서 15:4에 따르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_____의 _____을/를 위한 것이다.
3.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_____하게 하려고 오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태복음 5:17).
4. 아래의 성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을 상대로 _____을/를 맺을 시기가 오고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예레미야서 31:31).
5. 히브리서 8:13에 따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_____ 것”이다.
6. 구약성경에 ‘옛 구’[舊] 자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더 이상 _____이 없는 _____이기 때문이다.
7. 갈라디아서 3:24-25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은 _____(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다.
8. 아래의 성구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법’, 곧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살고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20-21).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하여

9. 에베소서 2:15에 따를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들을 폐지하셨는가? (예, 아니오)
10. 십계명은 원래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십계명의 일부를 신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가? (예, 아니오)
11. 구약의 십계명 가운데 신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있는가? (예, 아니오)
12. 11번 문제의 답이 '예'라면, 십계명 가운데 제외된 항목은 무엇인가? _____을/를 기억하여 _____.
13. 구약성경에서는 새 언약이 맺어지는 때에 관해 예언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_____와/과 그분의 _____된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 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오직 신약성경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까? (예, 아니오)
- 나.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방법을 신약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 가. 히브리서 10:1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어떤 점에서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는 것일까? 이 말씀의 뜻은?
- 나.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만 결국 완성을 통해 폐지하셨다(에베소서 2:15).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 구약의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었을까?



결론

진리를 찾기 위한 이번 장의 여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 '권위'라는 단어에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2. 하나님은 궁극적인 권위의 원천이다.
3.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4.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은 오늘날을 사는 사람 모두가 따라야 할 법이다.
5.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권위를 알려주셨으며,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분의 권위에 대해 알려주셨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책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따르면—영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2:2).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개역개정 로마서 10:17).

☞ **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킹제임스흠정역 롬 10:17).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달리는 경주에 참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규정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성경책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신앙 생활에서의 권위가 누구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곧 새 언약)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와 지침을 드러내 보여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경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심판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찾는 이 여정에 필자와 계속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일생에서, 이번 여행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진리를 찾아 나아갑시다.

제3장 되짚어 보기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이번 장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마태복음 28:18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_____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2.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오직 말씀만으로도 권위를 행사하고 계명을 주셨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_____ 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권위를 행사하신다.
3. 베드로후서 1:3의 가르침에 따르면 _____ 와/과 _____ 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게 된다.

요점 확인하기

1. 오늘날 우리는 구약성경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가? (예, 아니오)
2. 갈라디아서 1:8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로든 신약성경에 제시된 것과 다른 복음이 제시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 아니오)
3. 아래의 성구에 따르면 진리는 예수님의 _____ 속에 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와 ‘요점 확인하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 ‘권위’란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뜻함
- 하나님께서는 권위 면에서 궁극적인 원천이 되심
-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음
-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임
- 사도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음
-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말씀만이 신앙 생활에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음
- 신약성경만이 우리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됨

깊이 있게 알아보기

아래에 실은 자료는 이번 장에서 다룬 주제에 관해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실은 내용 가운데는 이번 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근원이심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바로 시도다(신명기 32:4).

여호와[=야웨/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사무엘기하 23:2).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시편 119:13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시편 119:16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예레미야서 15:16).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린도전서 2:12-13).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하여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니라] (디도서 1:2).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베드로후서 1:20-21).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1. 신명기 32:4에 따르면 하나님은 _____ 하고 거짓, 곧 불의가 없으시다.
2. 사무엘기하 23:2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_____ 에 있다고 했다.
3. 시편 119:130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_____ 을/를 비추어 주고 _____ 해 준다.
4. 시편 119:160에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가? (예, 아니오)
5. 예레미야서 15:16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말을 먹으며 기쁨을 느꼈는가? (예, 아니오)
6. 요한복음 17:17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_____ (라)고 하셨다.
7. 고린도전서 2:12-13에서는 성경 기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예, 아니오)
8. 디도서 1:1-2에서는 하나님께서 _____ 을/를 할 수 없음을 가르친다.
9. 예언은 '오직 성령의 _____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_____ 것'이다(베드로후서 1:20-21).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의지해야 함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편 119:9-11)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언 14:12).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도서 12:13)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예레미야서 10:2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태복음 7:13-14).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고결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러] (사도행전 17:1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개역개정 데살로니가전서 5:21).

☞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킹제임스흠정역 살전 5:21).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15).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요한 1서 4:1).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 만국의 왕이시여, /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시록 15:3).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10. 시편 119:9-11에서는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의지해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가? (예, 아니오)

11. 잠언 3:5에 따르면 우리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가? (예, 아니오)
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 필경은 _____의 길이니라”(잠언 14:12).
13. 예레미야서 10:23을 볼 때 사람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14. 마태복음 7:21에 따르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 아니오)
15. 데살로니가전서 5:21과 요한1서 4:1에 따르면 어떤 가르침을 받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헤아려 분별해야’ 하는가? (예, 아니오)
16. 사도행전 17:11에 따르면 베뢰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 _____을/를 _____했음.
17. 로마서 12:2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_____ [=세상]을/를 본받지 말고 _____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예수님께 의지해야 함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24-27).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마태복음 17:5).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한복음 8:31-3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20:30-31).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기적]과 기사(奇事)와 표적(表蹟)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사도행전 2:22-23).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2:9).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18. 사도행전 2:22-23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는가? (예, 아니오)
19. 요한복음 17:3의 가르침에 따르면 _____와/과 _____을/를 앎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
20. 마태복음 7:24-27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_____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_____ 사람이라고 하셨다.
21. 마태복음 17:5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가? (예, 아니오)
22. 요한복음 8:31-32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_____을/를 알게 될 것이다.
23. 요한복음 8:33-36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_____롭게 해 줄 수 있으시다.
24. 요한복음 14:6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가? (예, 아니오)

알림 | ‘깊이 있게 알아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100번이 훨씬 넘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예배 장소를 일컫는 말일까요? 그리스도교 관련 분파를 모두 합친 것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는 얼마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교회가 있어 그 교회에 속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도 입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건축물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권위 있는 《웹스터 뉴 월드 영어 사전》에서도 ‘교회’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공공 예배를 위해 성스럽게 구별하여 별도로 마련한 건물’(사전 인용 부분 번역은 이 책 옮긴이의 것임).

교회라는 것이 나무나 돌로 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건물 이상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교회 건물이 처음 지어지기 이전부터, 교파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회중 단위를 넘어선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교회는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모습 그대로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를 대하는 우리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위 있는 신앙의 근거인) 성경을 살펴 보면서 ‘교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란 무엇인가?
2. 교회가 꼭 필요한가?
3.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먼저 검토해야 할 질문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생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보통 ‘교회’라고 번역하는데,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교회’라는 말이 건물을 뜻합니다만 신약성경에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불러 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잘 정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8장 1절과 9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키이스 모셔 1세
(성경 강사, 전도자)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와 관련된 요소가 잘 드러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마태복음 16장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훌륭히 증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18-19).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인용한 예수님 말씀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2.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3.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나머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마태복음 18:18 참조) 하나님 나라 열쇠를 받게 되리라고 하셨다.

위에 정리한 세 가지 요점 가운데 마지막 항목에서 ‘열쇠’가 ‘권위’를 상징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지 1년쯤 지나서 실제로 교회가 설립될 때,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권위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설립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명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경 기자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노라면, 열두 사도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이같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오래 전에 예언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은—여러 가지 다른 일과 더불어—하나님 나라가 막 설립되려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9~11절에는 여러 나라에서 쓰던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도들은 그러한 언어를 배운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과 국가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나라 언어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령님과 관련된 구약성경의 예언 언급, ②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개략적 설명, ③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한 메시지, ④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까지 높이 지셨음에 대한 분명한 설명.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베드로에게서 듣자 신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양심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구원 받아야 할 사람임을 알게 된 그들은 소리 높여 외치며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새번역 사도행전 2:37).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죄를 사함, 곧 용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더러] (개역개정 사도행전 2:38-39).

☞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새번역 행 2:38).

사도행전 2장의 무대가 되는 1세기 당시는 물론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침수 세례를 받으도록 하십니다. 누가 사도행전에 남긴 기록을 따라가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사도행전 2:40-41).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세례/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점, 그리고 그 이유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는 점에 다시 한 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침수 세례를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침수 세례를 받고 나서 어디에 소속이 되었지요? 특정 교파에 가입했습니까? 2천여 년 전,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가 기록한 내용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중간 생략)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개역개정 사도행전 2:41, 46-47).

☞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킹제임스흠정역 행 2:47).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 기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세례[=침례]’ 받는 사람이 ‘구원’ 받고 있었고, 구원 받는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택해서 교회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교파에 속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교파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침수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그분께서 구원하신 무리에 더하셨습니다. 구원 받은 개개인 모두가 모여 ‘교회’라는 총체를 구성했던 것이지요(사도행전 2:47). 간단히 말해서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더 짧게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구원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보면 (신약성경의 나머지 책들이 그렇듯) 구원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을 통틀어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로 부를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용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합니다. 첫째로는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용법입니다. 특정 지역의 그리스도인 전부를 아우를 때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 성도를 묶어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경우). 둘째로는 ‘범세계적인’ 측면에서의 용법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구원 받은 사람 모두를 가리킬 때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경우). 셋째로는 ‘개별적인’ 측면에서 특정 회중을 거론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예를 들면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장면에서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 지역적 의미(“예루살렘 교회”—사도행전 11:22)
- 범세계적 의미(“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에베소서 5:25)
- 개별적 의미(“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히브리서 2:12)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모두 함께 일컬을 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써서 의미를 부여하고 성격을 묘사합니다. 그러한 용어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명칭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 =
교회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교회(‘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16:18)

‘교회’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에서 잘 드러나듯 구원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교회는 어두움에 속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신령한 빛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베드로전서 2:9; 골로새서 1:13; 로마서 13:12).

나라(골로새서 1:13)

교회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국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광경은 한 사람의 왕이 있고 그 영토 안에서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디모데전서 6:15; 계시록 17:14).

성전(고린도전서 3:16)

이방 종교 문화에서는 성전을 신(神)이 거하는 장소, 곧 신의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자리하고 계신 것입니다(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의 권속[=가족] (에베소서 2:19)

신약성경에서 ‘권속(眷屬)’이라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가족 단위를 일컫을 때가 많습니다. 비슷한 면에서 교회는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아들이 되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됩니다(마태복음 12:48-50; 요한복음 20:17; 히브리서 2:10-13).

몸(골로새서 1:24)

사람의 몸에는 하나의 머리를 비롯한 여러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고,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해

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통일되어 움직일 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듯이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서 일치성과 유일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에베소서 4:4; 로마서 12:1-5; 고린도전서 12:12-26).

우리는 지금 교회를 부르는 여러 명칭 가운데 마지막으로 ‘몸’이라는 표현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명칭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관련 지어 보면,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골로새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적어 보낸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각자가 그 몸의 일부라] (고린도전서 12:27).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로새서 1:24하).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정리해 보면—‘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교회는 예배를 위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실제로 뜻하는 것은 ‘구원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격과 핵심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전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디모데전서 3:14-15).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실제의 집을 말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인’ 집, 곧 교회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주님의 신성(神性)이라고 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마태복음 16:13-19).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하여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퉁잇돌이 되시며, 예수님을 따르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 있는 돌’로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집을 구성하고 있음을 배웁니다. 디모

교회에 관하여

데전서 3장 15절에 따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 곳곳에 진리, 곧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십니다. 그 문까지 가려면 구원의 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갖고 있는 기본 구조를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 모퉁잇돌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표로 정리해 봅니다.

교회란?
 구원 받은 사람들
 믿고 침수례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조금씩 되짚어 보기 교회란 무엇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는 원래 ‘_____을/를 _____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2.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교회’라는 말과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똑같은 뜻인가? (예, 아니오)
 사울은 그가[=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사도행전 8:1).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니라] (사도행전 9:1).
3. 마태복음 16:18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예, 아니오)
4. 사도행전 2:41과 46절, 4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시고 난 후 첫 오순절에 시작되었는가? (예, 아니오)
5. 앞의 4번 문제에서 언급한 오순절 날에 선포한 메시지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었는가? (예, 아니오)
6. 사도행전 2:38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던 날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_____을/를 받고 _____을/를 받으라.”고 했다(사도행전 2:38).
7. 사도행전 2:47에 따르면, 주님께서서는 ‘_____ 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사도행전 2:27).
8. ‘교회’라는 말은 _____ 받은 사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며 일컫는 말이다.
9. ‘나라’, ‘하나님의 권속’, ‘몸’ 등의 표현을 써서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는가? (예, 아니오)
10. 디모데전서 3:14-15에 따르면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로 하여금 _____의 _____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_____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_____(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다.

11. 아래 인용한 부분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설립된 것인가? (예, 아니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主)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하늘 나라]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13-19].

12.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인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_____ [=살아 있는] _____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베드로전서 2:5).

13.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도표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서의 ‘교회’>를 잘 살펴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모퉁잇돌은? _____
- 2) 죄인이 교회에 들어가고자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은? _____
- 3) 교회에 도달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 계단을 오를 때 교회 ‘문’을 들어서기 전에 거쳐야 하는 다섯 단계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가. 사도행전 2:38과 아래 인용한 두 구절에 따르면 침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은 침수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민고 세례[=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가복음 16:16).

[노아의 방주가 떠 있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개혁개정 베드로전서 3:21).

☞ [주]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새번역 벰전 3:21상).

나.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독자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가자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예, 아니오)

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가 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나. 무슨 뜻에서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디모데전서 3:14-15)라고 기록했을까?

다. 교회가 건물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생각에 빠진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서의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에베소서 2:20)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인정하는
반석과도 같은 고백
(마태복음 16:13-18)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에베소서 2:20)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됨
(디모데전서 3:15)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있는 돌들
(베드로전서 2:5)

예수님은
교회의 문
(요한복음 10:9)

침례 마가복음 16:16
고백 로마서 10:9-10
회개 누가복음 13:3
믿음 요한복음 8:24
들음 요한복음 6:45

교회에 관하여

교회는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그러면 이제, ‘교회는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굳이 교회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 얘기는 좋지만 교회 얘기는 그만두라.”라든가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얘기는 좋지만 영원한 계획 어찌고 하는 얘기는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을 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교회 지체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맞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꼭 필요한 것임을 (그리고 무척 값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니라 [에베소서 2:13-16].

바울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물론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분열과 분리가 교회를 통해 제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분리시켰음을 배웁니다. 성경에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 전파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화해’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2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 교회에 관하여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10-11).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웨스터 사전에서는 ‘화해’라는 단어를 ‘분리되어 소원(疎遠)했던 관계로부터 일체감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여러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던 당사자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한 몸’ 안에서 화목하게 됨을 배웁니다. 그 ‘몸’과 ‘교회’가 동일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에베소서 1:22-23).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는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자 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교회가 그토록 가치 있고 불가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에베소서 3:8-11).

위에 인용한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특유의 조직과 예배 형태를 볼 때, 교회는 지금껏 설립된 기관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교회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문화와 국가를 초월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같은 사람이면서도 분열이 존재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인용한 말씀에 앞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을 언급하면서 ‘중간에 막힌 담’이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담’은, 어떤 측면에서는 실제의 장벽을 뜻했습니다. 헤롯 성전 안에는 장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장벽은 이방인들이 성소와 안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장벽 때문에 이방인은 유대인과 진정으로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옛 율법 하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약속을 향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장벽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워싱턴
(전도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리라는 사실은 일찍이 구약의 두 선지자 이사야와 다니엘이 예언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을 없애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은, 중간에 가로막고 서서 분리시키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심에 따라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적, 사회 계층, 정치 성향, 교육 수준, 성별 등에 상관 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알프레드 워싱턴
(전도자)

그렇다면 교회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입니다(이사야서 2:2).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피부가 무슨 색이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교육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를 경우—국적과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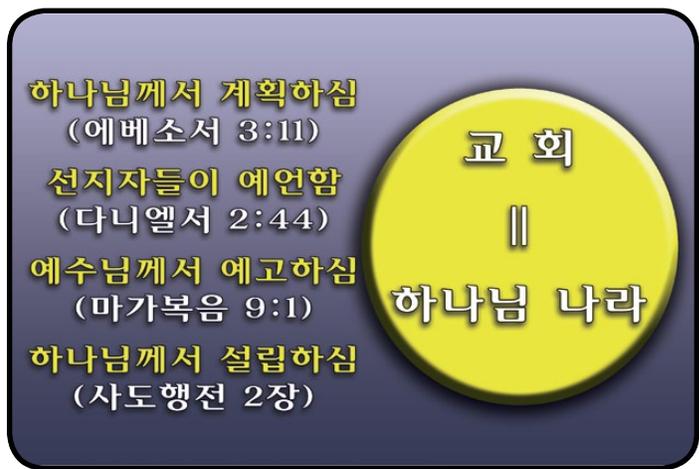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국적이거나 사회 계층에 따라 사람을 나누던 칸막이가 다 사라진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그리스도 안으로] 세례[=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7-28).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수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국가와 문화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형제자매의 일원이 되고, 소득 수준과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같은 가족이기에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된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넉넉한 곳입니다(사도행전 2:44-46; 4:32-35). 교회는—특히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에서 버림 받고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행복과 선한 뜻이 가득한 안식처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어 서로 도와가며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봅니다.

참으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뜻에서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필수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늘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배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란—몇몇 사람이 잘못 가르쳐 온 것처럼—주님께서 ‘나중에 생각해 내어’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 위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성경에서는 교회의 설립에 대해 아래의 도표와 같이 가르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일대를 지배한
고대 제국

(교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며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

금

바빌로니아
(BC 625~539년)

“그 우상[=형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다니엘서 2:32, 37, 38; 1:1 참조).

은

메디아-페르시아
(BC 539~331년)

“...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
[느부갓네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니이다]”
(다니엘서 2:32, 39; 8:20 참조).

놋쇠

그리스
(BC 331~63년)

“...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니이다]”
(다니엘서 2:32, 39; 8:21 참조).

쇠

로마
(BC 146년 ~ AD 476년)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열마는 쇠요
열마는 진흙이었나이다. ...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
(다니엘서 2:33, 40, 42, 43).

흙

하나님 나라 (AD 33년 경 설립)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서 2:44).



신약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 설립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다(마태복음 3:2; 4:17, 23). 교회는 왕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마태복음 16:18-19; 마가복음 9:1; 사도행전 1:3; 2:38, 47; 8:12; 골로새서 1:13), 교회가 설립된 시기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AD 1세기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난 후인 1세기 어느 시점에 설립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만방 곧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사야서 2:1-2),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를 1세기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골로새서 1:13; 데살로니가후서 1:5; 계시록 1:9).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죄를 회개한 사람 모두가 그 나라의 일부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안으로 침수 세례를 받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골로새서 1:18; 디모데전서 6:15)께서는 그분 나라에 속한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사도행전 2:36; 누가복음 17:21).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하신 계획에 따라 그분 나라의 설립을 준비하셨고, 선지자들은 그 나라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의 설립을 예고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괄적인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고, 그 계획은 1세기에 실현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성경에 나와 있듯—1세기에 세워졌습니다(골로새서 1:13; 데살로니가후서 1:5; 계시록 1:9). 다니엘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설립은 로마 제국 시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서 2:44).

위에 인용한 말씀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네 개의 세계 제국(바빌로니아,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네 번째 세계 제국, 역사에서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곧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리라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1세기에 이르러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설립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져 교회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가 얼마나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중간 생략) 남편 돌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베소서 5:23, 25).

위에 인용한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결해 가고 있으므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은 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②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구원하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본보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의 일부가 되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몸)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분명해 지는 것은 교회가 그저 ‘중요’하고 ‘값진’ 정도가 아니라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는 마지막 요점을 살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기로 한 세 번째 질문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침례]도 하나[니라] (에베소서 4:4-5).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통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 하나뿐인 믿음이 존재하듯, 하나뿐인 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23절에 드러나 있듯이) 똑같은 것이므로 하나뿐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

교회에 관하여

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8하).

예수님께서 (여러 개의) ‘교회들’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서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안,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교회 조직 구성 방법, 예배 방법 등에 대해 믿고 가르치는 것도 각각 다릅니다.

전화번호부를 유심히 살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온갖 이름을 지닌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많은 분열이 존재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교회의 종류와 이름이 그토록 여러 가지이고, 교회마다 가르치는 것이 천차만별이며, 교회 안에 그토록 많은 분열이 존재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몸을 분열시켜 인위적인 교회, 곧 교단을 만드는 일이 허용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분리시켜 다른 이름을 쓰고,

나름대로의 교리와 신조를 믿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가?
- 교회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름을 갖는 것이 합당한가?
- 교회가 여러 가지 신조를 갖는 것이 합당한가?
- 성경에 없는 교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가?

이번 장 뒷부분에서는 위에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되, “교회는 일치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교회가 필요 불가결한 이유

- 교회는 구원에 필수적임
- 교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남
-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
-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임
- 교회는 오직 하나만 존재함

조금씩 되짚어 보기 **교회는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에베소서 3:8-11과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혼자서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능한가? (예, 아니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에베소서 1:22-23).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니라(에베소서 2:14-16).

2. 에베소서 2:16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죄인이 (분리되어 있던 상태를 벗어나 다시 함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 (예, 아니오)
3. 에베소서 3:8-11에 따르면 바울은 “_____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_____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_____ 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기록했다.

4. 하나님께서는 인종차별주의라는 편협한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존재하도록 용인하시는가? (예, 아니오)
5. 교회는 신성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었고 선지자들이 설립을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설립을 예고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예, 아니오)
6.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1세기에 현실로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_____이/가 되어 다스리시는 _____이/가 설립된 것이다.
7. 에베소서 5:23과 2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몸을 구원하시는가? (예, 아니오)
8. 에베소서 1:22-23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교회는 ‘_____’(이)다(에베소서 1:22).
9.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 아니오)
10. 에베소서 4:4-5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몸, 곧 교회가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11. 마태복음 16:18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나, 아니면 여러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나?

12. 마태복음 16:18과 에베소서 4:4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파가 공존하는 상황을 용납하시는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 가. 교회는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까? (예, 아니오)
- 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예, 아니오)
- 다. 단 하나의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습니까? (예, 아니오)
- 라. 이 글을 읽는 분은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교단의 지체입니까?

생각 나누기

- 가. 에베소서 2:14에 따르면 옛 율법 아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담을 허무셨을까?
- 나. 다니엘서 2:44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리라고 했다. 여기서 다른 모든 나라란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설립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교회에 관하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열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 논리를 우리는 '분파관용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파'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분파'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특정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단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른 단체를 만들게 되면 '분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 그 사람은 '분파'하여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분파관용주의로 인해 수 많은 몸으로 나누어져서, 이제는 모든 분파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만든 분파가 미국에서만도 600개가 넘습니다. 다른 신조, 다른 교리, 다른 도그마를 따른다는 이유로 일어난 일이지요. 분파한다는 것은 교회를 쪼개어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는데 말입니다.

키이스 모셔 1세
(성경 강사, 전도자)

여기서 우리가 '분파관용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생각, 곧 전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특정한 명칭을 채택하고 특정한 교리 체계를 수용하는 태도는 분열과 파벌주의를 조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분파관용주의적인 가르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에서는 사람이 만든 교리나 특정인의 명성에 기인한 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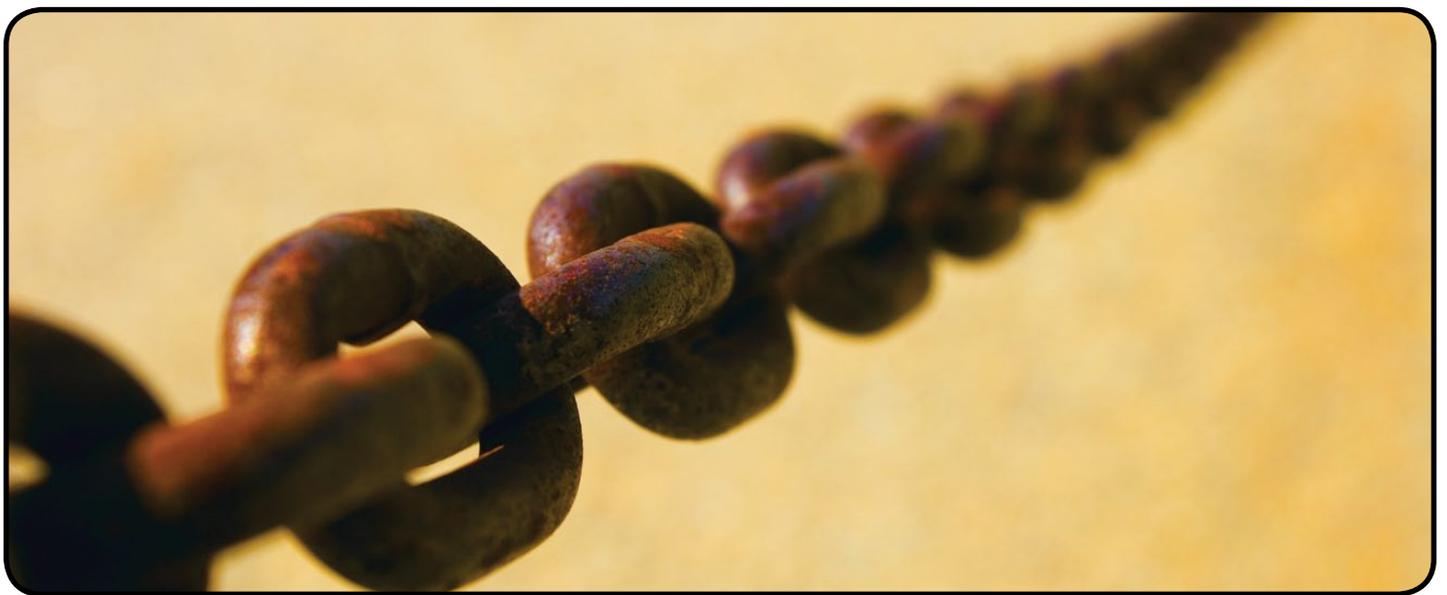
의 조짐만 보여도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누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전도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고린도라는 이름의 도시에 교회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듣고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한 여러 고린도 사람에게 침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린도를 경유해서 바울은 결국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역하며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문제점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제각각 특정 전도자를 선호한 나머지 지체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침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11-13).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 하심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분열을 정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린도전서 1:10)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호하는 전도자가 다르다는 이유에서 일어난 분열이었습니다. 침수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바울은 이러한 분열을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 침례]를 받았습니까? (새번역 고린도전서 1:13).

바울이 제시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갈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2~2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본질적으로 통일된 속성을 지니고 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이는 바울이 아닙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으로 침수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따르면 죄를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수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일부가 스스로를 ‘바울주의자’라고 불렀다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을까요? 바울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바울 교회’) 정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알렉스 캠벨이라는 전도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며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알렉스 캠벨이라는 그 사람이 아주 출중한 데다가 학식을 많이 쌓은 성경학자이고 수천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께 돌이키도록 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알렉스 캠벨이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을 기리는 의미에서 ‘캠벨주의자’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캠벨주의자’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셔야 합니다.
2. 알렉스 캠벨의 이름으로 침수례를 받아야 합니다.
3. 침례 받는 사람을 위해 알렉스 캠벨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캠벨주의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아닌 알렉스 캠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1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베

드로전서 4:16).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베드로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전도자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것이 잘못이라면, 사람이 만든 신조나 교리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것 역시 똑같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름을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거나 우리가 몸 담고 있는 회중에 부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킨다면 그것 역시 똑같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다르게 가르칠지라도 분파관용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양쪽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의 몸, 곧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며, 하나뿐인 그 교회에서는 늘 똑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단체가 따로 떨어져 나아가 분파해서는 자기네 단체야말로 하나뿐인 바로 그 몸에서 비롯되었다고들 주장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B. J. 클라크
(전도자)



교회에 관하여

교회 일치 문제는 신약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믿는 사람 모두가 일치를 이루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20-21).

바울이 특별히 지시한 내용은, 성령께서 하나되신 것을 평안의 매는 줄을 통해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 4:1-6).

일치를 이루라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당파주의에 대한 ‘정죄’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분열과 당파주의는 육체의 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행할 때 관용해서도 안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갈라디아서 5:19-21).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로마서 16:17-18).

성경에서 분열은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에베소서 4:1-6). 교회 구성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판단을 내리려 한다면,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과 행동은 어떤 것이든 흔쾌히 포기하겠다는 각오를 우리 각자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여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매는 줄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로새서 3:17).

조금씩 되짚어 보기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오늘날 그리스도교에는 여러 ‘교파’가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교회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분파는 그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 (예, 아니오)

여러분[=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20:28).

2. 성경에서 ‘교파’라는 개념을 인정하는가? (예, 아니오)
3. 고린도전서 1:10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 가운데 _____이/가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_____.”고 했다.

4. 고린도전서 1:10-13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따라) 바울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예, 아니오)
5.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구원을 받도록 해 줄 _____ 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2).
6. 요한복음 17:20-21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_____ 이/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다.
7. 에베소서 4:1-6을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일치를 강조했다는가? (예, 아니오)
8. 갈라디아서 5:19-21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분열과 분당과 분파는 잘못된 것인가? (예, 아니오)
9. 골로새서 3:17에 따르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 가.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날에 수없이 만들어낸 분열된 단체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면 계속 그 교회에 머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예, 아니오)
- 나. 골로새서 3:17에 따르면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교회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한 이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 가. ‘종파주의’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 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정하시지 않은 이름을 교회 단위로, 또는 그리스도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 다. 그리스도인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교회 단위로) 바울주의자라는 말을 쓰는 일이 그릇된 것이라면,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교회에 관하여

결론

어떤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과 승인 하에 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나는 지금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 교회의 일원인가? 나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그래서 받아주시는—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만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치가 더 잘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인위적인 종교적 명칭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기존에 신봉하던 신조집이나 ‘신앙 고백’이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일체의 관행을 버리고 ‘그저’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그러한 일은 ‘멋진’ 상상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큰 소리로 “그렇다!”고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교회에 관한 논의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맥락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는 것도 배웠습니다.

위에 정리한 내용 가운데 특히 교회에 관한 세 가지 참된 가르침은 전반적인 신앙 체계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포함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종교 관련 명칭, 교리, 관행 등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요한복음 8:32).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책에 제시되어 있는 그대로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4장 되짚어 보기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이번 장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마태복음 16:18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_____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2. 사도행전 2:41, 그리고 46~47절에 따르면 ‘주께서 _____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3. 고린도전서 1:13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은? (예,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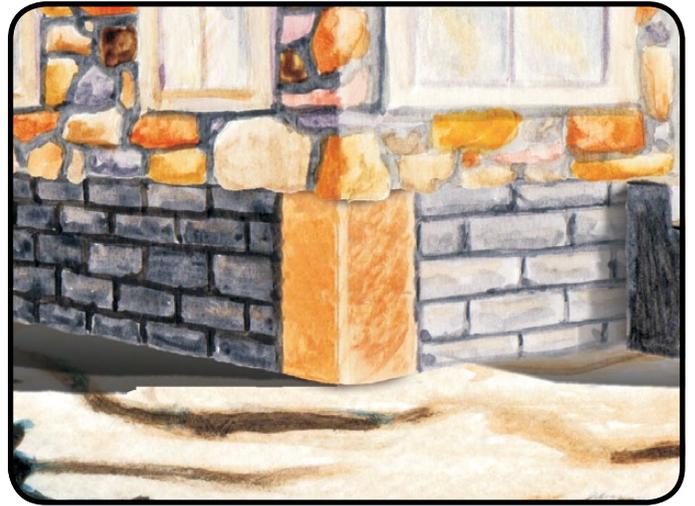
요점 확인하기

1. 사도행전 2:47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사람을 교회에 더하신다. 그렇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예, 아니오)
2. 골로새서 1:24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4:4에 따르면 몸은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몇 개의 교회를 세우신 것인가? _____
3. 이번 장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구원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세 가지 방식으로 쓰이는 것을 보았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사도행전 11:22)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지역적인 의미이다. 나머지 두 가지 방식은?
(가) _____ (나) _____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와 ‘요점 확인하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음
- 교회는 필요 불가결함
-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함
- 예수님께서서 교회를 세우셨음. 예수님께서서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임. 교회의 명칭에는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함
- 교회 = 구원 받은 사람들 = 믿고 침례 받은 사람들의 모임 = 그리스도의 몸 = 하나님 나라 = 하나님의 집 = 하나님의 성전
- 구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함
- 교회의 분열은 죄임



그 후에 /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라] (요엘서 2:28-29).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마가복음 9:1).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사도행전 2:14-18).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개역개정 사도행전 2:47).

☞ **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킹제임스흠정역행 2:47).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개역개정 베드로전서 1:18-20).

☞ **㉕**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느니라](킹제임스흠정역 뱀전 1:20).

깊이 있게 알아보기

아래에 실은 자료는 이번 장에서 다룬 주제에 관해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실은 내용 가운데는 이번 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언, 약속, 그리고 성취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 그의 어깨에는 정사(政事)를 메었고 /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조언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 지금 이후로 영원히 /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이사야서 9:6-7).

그러므로 주 여호와[=야웨]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로다. /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개역개정 이사야서 28:16).

☞ **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잇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킹제임스흠정역 사 28:16).

교회에 관하여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4, 7).

☞ **☞**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에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 있는 귀한 돌입니다. ...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①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 [입니다] (새번역 벰전 2:4, 7).

① 시 118:22(칠십인역)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1. 이사야서 9:6-7에서 이사야는 누구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가? _____
2. 이사야서 28:16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귀한 돌’과 ‘튼튼한 기초’는 누구를 말하는가? _____
3. 마가복음 9:1에서 예수님께서서는 1세기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곧 교회)가 오리라고 가르치셨는가? (예, 아니오)
4. 사도행전 2:47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돌아온 오순절에 설립된 중요한 기구(機構)는? _____
5.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교회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이 요엘서 2:28-29과 사도행전 2:14-18의 가르침인가? (예, 아니오)
6.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_____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_____ 바 되었다. 영국 제임스 왕 역본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미리 _____ 하여졌으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_____ 나셨다(베드로전서 1:18-20).
[한글 킹제임스흠정역을 참고하여 답하십시오. — 옮긴이]
7.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7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다.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_____



그리스도와 교회의 필요성과 실재성, 그리고 거기서 얻는 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가복음 8:34하).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2).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타르수스]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사도행전 11:25-26).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개역개정 로마서 3:23).

☞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새번역 롬 3: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개역개정 로마서 6:23).

☞ **☞**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킹제임스흠정역 롬 6:2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 [도다] (에베소서 1:3).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용서를] 받았느니라(에베소서 1:7).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구원자]시니라(에베소서 5:23).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왕관]을 네게 주리라(계시록 2:10).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책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담고 있다. 이러한 상징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여 곡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장 10절에 나와 있는 환난 기간을 문자 그대로 10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가지 커다란 환난'이나 '짧지만 충분한 기간 동안의 환난'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무난하겠으나, 이 경우도 어느 한 가지 견해를 절절대화하다 보면 주어진 말씀을 넘어서게 된다. —웁긴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 각 족속 [=종족]과 방언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계시록 5:9).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8. 마태복음 11:28-30에 따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_____ 을/를 주신다.
9. 마가복음 8:34의 가르침을 볼 때,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예, 아니오)

10. 사도행전 4:12의 가르침을 볼 때, 구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름에 의지해야 하는가? (예, 아니오)
11. 사도행전 11:26에 따르면 교회의 지체 곧 제자들을 가리켜 _____ (이)라 부르게 되었다.
12. '죄의 삯은 _____'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_____'이다 (로마서 6:23).
13. 에베소서 1:3과 7절, 디모데후서 2:10 등에 따르면 모든 신령한 복, 대속, 죄 사함, 구원 등은 오직 _____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14. 에베소서 5:23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교회의 일부가 아닌 사람도 구원하시는가? (예, 아니오)
15. 계시록 2:10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선언하시기를 충성을 지키는 사람에게 _____ 의 _____ 을/를 주겠다고 하셨다.

알림 | '깊이 있게 알아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에는 대부분 나름대로의 거처가 있습니다. 집의 모양과 형태도 아주 다양해서, 층수·구조·가구 배치 등이 모두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집이든 그 집 주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집을 갖고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집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집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서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편지에 담아 디모데라는 젊은 전도자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디모데전서 3:14-15).

위에 인용한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집, 곧 거처를 갖고 계심을 배웁니다. 그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앞서 제4장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구원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방금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주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므로 지구 위 어디에든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며 언제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매우 특별한 방법을 통해—교회라고 하는 백성이 만들어 내는 범위 내에 거하십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집 지체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16에 따르면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하나님의 집,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매우 특별합니다. 특별하신 분께서 설계하여 세우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교회는 특별한 조직과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찾으려고만 하면 오늘날에도—틀림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찾아 봅시다. 하나님의 집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함께 찾아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웠나?
2.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3.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웠나?”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웠나?

하나님의 집을 누가 세웠는가 하는 질문은 한참 생각해서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을 읽어 보고, 그분 교회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리는 세례[자] 요한, 더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3-18).

위에 인용한 부분의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을 통해 소유권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교회’라는 표현에는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자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복)자는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주체(즉 하나님의 집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히브리서 3:1-6).

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킹제임스흠정역 히 3:6).

위에 인용한 성경 구절을 통해 (그리고 앞의 제4장에서 교회를 주제로 공부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하나님으로서—집을 하나 세우셨다.
- 그리스도인들(곧 구원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집이다.
-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집을 다스리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라고 하는 집의 건축자이자 소유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집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집을 다스리신다.”는 표현 속에는, 교회(敎會) 시대가 과거 모세 시대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하나님의 종으로서—하나님 집에서 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하나님의 아들로서—교회라고 하는 그분 집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또한 [아들이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골로새서 1:17-18).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기록하기를 예수님만이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인위적인 단체도, 어



면 협의제도 예수님께서서 갖고 계신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원칙이지요.

척 호너
(성경 강사, 전도자)

골로새서 1장 17~18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 지니는 성격이나 예배 형태, 조직 방법, 하는 일 등을 결정할 권한이 오직 그분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교회 수장(首長)’을 자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 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서 세우신 교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소유자이자 건축자이며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집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만큼의 권위를 갖고 계신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예수님 스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8:18).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위는 전적인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분의 권위를 나누어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란 ‘전부 다’를 뜻하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곧 교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를 세워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집을 세워 소유하면서 그 집의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 그 집을 개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이나 필자에게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제멋대로 권위를 부여하고는 예수님께서 지어놓으신 집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살 집을 직접 짓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땅과 건축 자재를 사기에 충분한 돈이 있고, 여러분은 직접 집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집 짓는 일을 도와 줄 건축 관련 근로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시켜 여러분 지시대로 집을 짓게 합니다. 방의 개수, 거실 넓이 등을 여러분이 계획한 그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고, 친구나 친척이 여러분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살게 된 친구나 친척이 ‘여러분’ 집을 ‘그 사람들 마음대로’ 개조할 권한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허락도 없이 여러분 집 구조를 바꾸어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보니 함께 사는 친구나 친척이 자기 마음대로 벽을 덧대고 문을 새로 달고 해서 여러분 집의 구조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그렇겠거니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 집이 바로 ‘여러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집은 여러분 돈을 들여 여러분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바

로 여러분이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갖는 권리에는 그 집의 설계에 관한 것뿐 아니라 건축 후의 관리 방법도 포함이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라고 하는) 집을 사셨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사신 것입니다(사도행전 20:28; 베드로전서 1:18-19).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을 시켜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도와 드리며 기록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에베소서 2:19-22; 고린도전서 3:10-11).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워 소유하고 계신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의 모습을 ‘우리’ 취향대로 바꿀 권한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집 구조를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에 따라 바꿀 권한이 우

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은 우리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그 집 이름을 바꾸어 불리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와 같이, 세입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을 처음 모습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칙이 적용되며, 그 원칙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과 관련하여 성경에 기록된 세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도 권한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 소유하고 계신 분이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 집에 대한 권한 전부를 갖고 계십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웠나?**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디모테전서 3:14-15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_____’(이)다.
2.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 ‘나라’, ‘구원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등의 표현은 모두 교회를 가리키는가? (예, 아니오)
3. 마태복음 16:13-18:3에 비추어 답하십시오.
 - 1) 교회는 누가 세웠나? _____
 - 2) 교회는 누구 소유인가? _____
4. 골로새서 1:17-18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존속한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_____’(이)시다. 예수님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_____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5. 마태복음 28:18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_____와/과 _____의 _____ 권세를 갖고 계신다.
6.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는가? (예, 아니오)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개역개정 사도행전 20:28). [다음 쪽에 계속]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데 쵸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킹제임스흠정역 행 20:2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18-19).

7.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신 분인 동시에, 그분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그것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집에 변경을 가한다든가 새로운 것을 덧붙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까? (예, 아니오)
8.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모퉁잇돌이 되시는 가운데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예, 아니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에베소서 2:19-22).

9. 하나님의 집(곧 교회) 내부에 거하는 사람(곧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하신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그분의 집—곧 교회—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리신다고 믿습니까? 또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 일을 바꾸거나 무시할 권한이 없다고 믿습니까? (예, 아니오)

나. 이 글을 읽는 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회—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바로 그 교회—의 지체입니까?

생각 나누기

가. 킹제임스흠정역 히브리서 3:6에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라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나.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섬기신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사도들이 맡은 역할은?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집을 설계하고 세우는 일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 구성원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떤 이름(들)을 사용할까요?

모든 종교 단체에는 다른 종교 단체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집과 남의 집을 구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은 유사한 다른 집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도록 합시다. 출석하는 교회가 있으신 분은 그 교회가 지니고 있는 성격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집과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궁극적 기초가 되심

첫째, 주님의 집인 교회에는—우리가 사는 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궁극적인 기초가 존재합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개역개정 고린도전서 3:11. 에베소서 2:19-22 참고).

☞ **조**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새번역 고전 3:11).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특정인의 명성이라든가 인위적인 교리, 신조, 교육 기관 등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안 됩니다. ‘문화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의 우호적인 관계 혹은 반발심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히브리서 13:8).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심

두 번째로, 앞서 살펴보았듯, [사람이 지은 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에도 그것을 ‘세운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8하).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교회 이름에 간직함

세 번째로, [사람이 지은 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칭’을 통해 그 집이 주님의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

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사도행전 20:28; 고린도전서 1:2; 갈라디아서 1:13; 디모데전서 3:5).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기(요한복음 20:27-28),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로마서 16:16). 교회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담는 것’은, 피 값으로 교회를 사신 분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0:28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여러분이 부담했다고 말입니다. 이 경우 등기 권리증의 소유자란에 누구 이름을 기록해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름을 적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입해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름’이 등기 권리증에 적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신 분이니만큼 그 분 소유물인 교회에 ‘그분의’ 이름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에 교회 이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부를 때 쓰는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에베소서 5:22-33; 로마서 7:1-4; 고린도후서 11:2).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포함한)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신부의 이름이 ‘다른 남자’의 이름과 함께 거론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중히 간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체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교회 이름에 그분 이름을 넣어 불렀던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개역개정 로마서 16:16).

☞ **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킹제임스흠정역 롬 16:16).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 집의 기초를 놓고 직접 지으신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 이름에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조직하심

넷째로, 집과 교회가 지니는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조직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골로새서 1:18). 골로새서 1장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범세계적’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역적’ 의미로 세분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하여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으로 부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설립 후 장로들의 지도 아래 조직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장로들은 각각의 회중—곧 하나님 백성의 모임—을 돌보며 이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니라 (사도행전 14:23).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들(로마서 16:16)이라는 말이 개별적인 회중을 가리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회중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범세계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의 머리로서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개별적인 교회를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지시를 내려 주셨습니다. 장로라고 부르는 성인 남성들을 통해 각각의 교회가 하는 일을 감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비 리델
(성경 강사, 전도자)

‘장로’라는 말은—자신이 속한 회중의 다른 장로들과 함께—한 무리의 회중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한 무리의 회중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세 가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면서 베드로전서 5:1과 사도행전 20:17과 28절 등에 나옵니다. 그 세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나이 든 사람)
에피스코포스	감독(살피는 사람)
포이멘	목자(돌보는 사람)



앞에서 정리한 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즉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도서 1장 7~9절에 제시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장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할 줄 아는 마음가짐, 신중하고 거룩한 삶의 태도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로가 될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난폭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디모데전서 3:2-4).

장로 직분을 맡을 사람은 위에 인용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장로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양 떼를 돌보아야 하는 배타적인 책임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어 섬기기도 했던 사도 베드로는 감독자로서의 장로가 하는 일과 그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개역개정 베드로전서 5:1-2).

☞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킹제임스흠정역 뱀전 5:2).

여러 명의 장로나 한 사람의 감독이 개별적인 회중의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행사한 증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특정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장로들이 에베소에 있는 회중과 관련된 문제를 감독할 수 없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계층 구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 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실 뿐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도와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는 회중 단위로 장로들의 지도 하에 조직되었고, 장로들은 지도부를 구성하여 자기가 속한 양 떼를 감독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 조직하고자 하는 경우, 성경에 제시된 모본을 따라야만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회중 단위로 두 명 이상의 장로(사도행전 14:23)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회중을 단위로 양 떼를 친 것입니다(베드로전서 5:2 이하). 장로 제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중 단위로 두 명 이상의 장로를 두게 하심으로써, 장로 한 사람이 도덕적인 면에서나 가르침 면에서 타락하게 되더라도 지도부 전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장로 체제 안에는 서로를 점검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집사들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집사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집사들은 장로들의 감독 하에 회중을 섬겼는데, 장로들은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서 볼 수 있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사들 역시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집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나옵니다. 1세기의 전도자는 교회에서 감독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본을 따를 때 전도자는 장로들의 감독 하에 회중을 섬겨야 합니다.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전도자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감독들(장로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집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양 떼를 감독하고, 집사들은 장로들의 권위 아래서 회중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자들과 지체들도 마찬가지로, 장로들이 다스리고 감독하는 바에 따릅니다(히브리서 13:17).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B. J. 클라크
(전도자)

하나님의 집에는 궁극적 기초가 된 분이 계시고, 직접 세우신 분이 계시며,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은 독

하나님의 집이 지니는 독특성

궁극적 기초가 된 분이 계심

세운 분이 계심

독특한 이름을 지님

독특한 조직을 갖추

독특한 예배 형태를 유지함



특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의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집'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내용대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예배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인하신 방식에 따라 예배 드림

다섯째로, [집집마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집에서는—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진정한 예배자가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24).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면 원래의 의미가 불완전하게 전달됨—옮긴이]

예수님께서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던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 곧 참된 가르침 대신 사람의 계명에 따라 예배를 드릴 경우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된다고 예수님께서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개역개정 마태복음 15:9).

☞ **진**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새번역 마 15:9).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 형태의 예배나 용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어떠한 요소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하는 일

기도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모여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 2:42; 4:31; 디모데전서 2:1-6; 데살로니가전서 5:17; 사도행전 12:5).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전해 드릴 수 있는 오직 한 분뿐인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1세기 당시 교회 예배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모여 예배 드릴 때 기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집 지체들이 모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사도행전 20:7, 20; 고린도전서 14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 사는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일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영양을 공급 받고 영적인 힘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외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연보합니다

1세기 당시 교회가 설립되자 교회 일 추진에 사용할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는 노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후원해야 했으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정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회중들은 도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바친 것을 ‘매주’ 첫날에 모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고린도전서 16:1-2; 고린도후서 9:6-7).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십일조’라고 해서—소득이나 소출에서 10분의 1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집인 교회에서는 십일조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그리스도인은 이(利)를 얻은 대로, 곧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의 수입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개역개정 고린도후서 9:6-7).

☞ **☞**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새번역 고후 9:7).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매주 첫날에 연보 말고 다른 일도 합니다.

(매주 첫날에) 주님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교회의 탄생과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 주간의 첫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째 날에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도 그 주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가르침대로 설립된 교회가 모여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날도 매주 첫날이었습니다(사도행전 20:7; 마태복음 26:26-28; 사도행전 2:42).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특별한 순서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찬양과 연보와 설교와 기도가—매주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그 의미를 잃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만찬 역시 매주 거행한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1세기에는 주님의 만찬이 교회 예배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주 만찬을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그 회중이 주님의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개역개정 골로새서 3:16. 에베소서 5:19과 고린도전서 14:15 참조).

☞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킹제임스흠정역 골 3:16).

음악은 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관련 분파에서 흔히 보는 음악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



에서 볼 수 있는 음악은 ‘아카펠라’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악기 반주도 없이 노래합니다.

예배 내용, 구원 계획, 교회 조직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이런 성격의 문제는—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그분 자신의 말씀을 통해 무어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을 예수님께서서 시키시는 방법대로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B. J. 클라크
(전도자)

기악 음악은 서기 7세기가 되어서야 교회 음악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른바 ‘교부들’이 쓴 글을 보더라도 교회 설립 후 3~4세기가 지나도록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에 악기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배 때 악기를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기악 음악을 사용하는 문제는 교회사 초기 4~5세기 동안에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기 900년대가 되어, 기악 음악은 마침내 그리스도교 예배 요소로 수용되었습니다. 기악 음악의 도입은 당시의 교회에 극심한 분열을 야기했기에, 동방정교회에서는 기악 음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예배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500년대에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존 칼빈, 존 웨슬리, 마틴 루터 등)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종교 개혁가 가운데도 예배 때 악기를 쓰는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벤 모즐리
(교수, 전도자)

여러 그리스도교 분파에서 점진적으로 예배에 악기를 도입하는 와중에서, 출중한 사역자 가운데는 자기가 속한 교단의 악기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필자에게 음악은—일종의 과학으로서—높이 평가하며 탄복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 내부에 들어온 악기는 필자에게 대단히 혐오스럽다. 교회 안에 악기를 들여오는 것은 음악을 남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창시자에게 드리는 예배를 이처럼 훼손하는 일체의 행태에 대해 필자는 이 자리를 빌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이다((아담 클라크 주석) 아모서서 6:5. 인용 부분 번역은 이 책 옮긴이의 것임).

나는 우리 교회당에 악기를 들여오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 악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악기의 모습이 눈에 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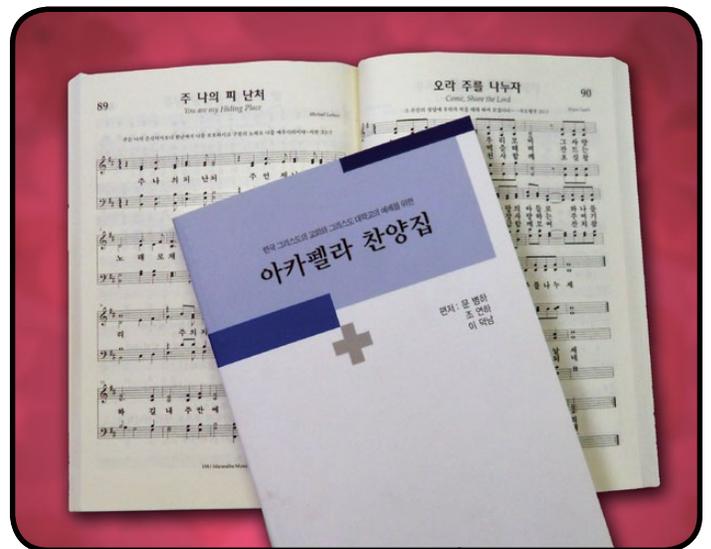
않기만 하면 된다(존 웨슬리의 말을 《아담 클라크 주석》 아모서서 6:5에서 재인용함).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과거 여러 성경 학자가 개탄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악기 사용을 인정한 곳이 없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지만, 악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우어 그리스어 대사전에 따르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詩)’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의 동사형인 ‘프살로’는 악기 없이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다른 형태의 음악은 모두 배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기악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음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악기를 쓰지 ‘말라’고’는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악기 사용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면서 설파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처방전을 갖고 약사에게 갔더니 처방전을 본 약사가 속으로 말합니다. ‘설파제를 처방했군. 하지만 페니실린을 조금 추가해야겠는걸.’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져야 약사가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약사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약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방전에는 페니실린을 투여하지 ‘말라’는 말이 없던데요.” 의사가 처방전에 페니실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린 투여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약사가 환자에게 페니실린을 투여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약사가 갖고 있는 권한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어라 적혀있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배 음악과 관련된 성경 구절,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악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면 ‘한결같이’ 성악 음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 음악은 성악이며,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실 때, “히코리 나무를 쓰지 말지니라.”라든가 “호두나무 재목을 쓰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펬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종류의 나무는 모두 배제된 것입니다.

제임스 메도우즈
(성경 강사, 전도자)

하나님의 집에서 인정된 독특한 노래 방식은 분명 ‘아카펠라’입니다(즉 악기 반주 없이 노래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의 예배음악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악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맞습니다. 구약에는 악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은 매우 초보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체계로서 육체의 예법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동물을 죽여 그 피를 뿌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향도 피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혈통에 따라 특정 지파가 제사장 직을 전담했고, 계층을 막론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부과된 육체의 예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가 히브리서 9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제도는 신약이라고 하는 더 낮고 보다 영적인 체계로 이어졌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계가 주어졌으므로 오늘날에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록된 말씀인 신약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만찬에 포도즙과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심으로써 악기 연주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밥이나 코카콜라를 곁들이자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밥과 콜라는 우리가 즐겨 먹고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밥과 콜라라는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 정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그 두 가지를 곁들일 생각을 감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밥과 코카콜라와 악기를 예배에 곁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1세기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악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

지만, 예배에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갖고 있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벤 모즐리
(교수, 전도자)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도 음악 면에서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카펠라’ 음악이라는 두드러진 표지(標識)를 비롯한 모든 독특한 예배 형태는(하나님의 집이 독특한 기초, 구조, 이름 등을 갖고 있고, 특별한 분께서 기초를 놓고 세웠다는 측면과 아울러) 신약 시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독특성은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주님 교회의 특이한 속성 가운데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눈에 띄는 특징을 몇 가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르침(하나님의 말씀) 면에서

하나님의 집(곧 교회)에서 전하는 교훈[=가르침]은 독특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가르칩니다(디모데전서 3:16-17).

하는 일 면에서(복음 전파, 영적 성장, 이웃 돌아보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갖는 또 하나의 독특성은 몇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마태복음 28:18-20; 고린도전서 16:1-2).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 지체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활동 등에 힘을 쏟습니다.

구성원 면에서

하나님의 집은 구성원 면에서도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집 지체가 된 사람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고(사도행전 6:7), 스스로를 그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사도행전 11:26; 베드로전서 4:16). 오늘날 그리스도교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은 1세기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간직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제사장 직책 면에서

신약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요 사제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베드로전서 2:9; 계시록 1:5-6; 갈라디아서 3:27 참조). 성경에 따르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고 침수 세례 받은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요 사제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곧 성전)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에는 ‘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꾼 구성 면에서

끝으로, 주님의 집에는 집사와 전도자와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13절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님 집 일꾼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인 남성으로 구성된 이러한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일꾼들을 비롯한 교회 지체 모두는 ‘신부(神父)님’이라든가 ‘목사(牧師)님’과 같은 경칭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마태복음 23:9).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편 111:9).

☞ **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救贖)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킹제임스흠정역 시 111:9).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Rev.’라는 경칭은 여기서 ‘지존하시도다’로 번역한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한 것임—옮긴이]

이번 장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며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는 두드러지게 독특한 특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님의 집이 지니는 특징을 항목별로 살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며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교회의 두드러진 표지

가르침

하는 일

구성원

제사장 직책

일꾼 구성



조금씩 되짚어 보기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 히브리서 13:8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_____ 동일”하시다.
- 로마서 16:16과 관련하여 답하시오.
 -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면 잘못된 것인가? (예, 아니오)
 -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를 사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예, 아니오)
- 사도행전 14:23 및 이 문제 아래쪽에 있는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답하시오.
 -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_____
 -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말인가? (예, 아니오)
 - 장로는 결혼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예, 아니오)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 4) 장로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하는가? (예, 아니오)
- 5)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장로직을 맡아 섬길 수 있는가? (예, 아니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난폭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개역개정 디모데전서 3:1-7).

예 **답**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까(새번역 딤후 3:1).

내가 너를 그레데[=크레타]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쁘[=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가르침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디도서 1:5-9).

4. 사도행전 14:23, 베드로전서 5:1 및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볼 때 ‘장로’와 ‘감독’과 ‘목자’는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고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바울이 밀레도[=밀레토스]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 (사도행전 20:17).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개역개정 사도행전 20:28).

예 **답**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킹제임스 흠정역 행 20:28).

5. 여러 명의 장로 또는 한 사람의 감독이 자기가 속한 회중 밖에까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성경에서 인정하는가? (예, 아니오)
6. 요한복음 4:24에 따르면 진리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 아니오)
7. 이 문제 아래쪽에 인용한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답하시오.

1) 성경에서 진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_____ 의 _____

2)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요한복음 4:24)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인가? (예, 아니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 17).

8. 마태복음 15:9에 따르면 하나님께 헛되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가? (예, 아니오)

9.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모여서 _____ 해야 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사도행전 2:42).

빌기를 다하매[=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31).

10.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 모인 제자들에게 _____ 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라 (사도행전 20:7).

11. 고린도후서 9:6-7과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주간의 첫날에 모일 때 _____ 을/를 해야 한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린도전서 16:1-2).

12. 사도행전 20:7과 사도행전 2:42에 따르면 주간의 첫날에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은 _____ 을/를 _____ 야 한다(즉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13. 골로새서 3:16과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_____ 을/를 해야 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개역개정 에베소서 5:19).

예 **조**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라] (킹제임스 흠정역 엡 5:19).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개역개정 고린도전서 14:15).

14. 골로새서 3:16, 에베소서 5:19, 고린도전서 14:15에 따르면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통해 모든 다른 형태의 _____ 을/를 배제하셨다.

16. 교회 예배에 밥, 코카콜라, 악기 등을 첨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예, 아니오)

17.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직책을 맡고 있는가? (예, 아니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시록 1:5-6).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마음 다지기

가.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_____

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도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라.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교회를 계속 후원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가. 디모데후서 3:16-17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곧 교회)에서 전하는 독특한 교훈[=가르침]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신조나 교리가 발붙일 자리가 교회에 있을까?

나. 베드로전서 2:9, 계시록 1:5-6, 갈라디아서 3:27 등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직책을 맡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을 수 있을까?

다.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하고 있다. 교회의 명칭,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과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 비유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에베소서 5:22-33).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간음한 여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7:1-4).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뒷부분 생략. 고린도후서 11:2).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가?

이제 이번 장의 세 번째 주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은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집을 오늘날 우리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1세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을—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대로—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침 목수이자 전도자인 사람이 있으니 그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면에서 집과 비슷합니다. 집은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집에는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는 기초가 있고 구조가 있지요. 집은 그것이 누구 집인가에 따라 그 집만의 독특성을 지닙니다. 또 한 가지, 집마다 그 집을 지을 때 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나 계획서가 없다면 집을 지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할 겁니다. 도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의도한 그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지니는 가장 큰 가치는, 도면만 있으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도면이 있고 건축 재료만 확보되면 완전히 똑같은 집을 세계 어느 지역에든 지을 수 있습니다. 도면만 있다면 집을 당장 지을 수도 있고 50년 후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도면대로만 지으면 되지요.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성경을 모본 내지는 도면으로 삼아 북아메리카든 남아메리카든 아프리카든 어느 곳에나 똑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 명칭, 예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성경책에 적혀 있는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교회에 들어가는 방법과 지체로서의 역할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특정 종파의 신조집을 선택하여 연구한 다음 그 규례에 따라 그 종파 소속의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읽고 그 내용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 세우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다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도면에 따라야 합니다.

토마스 무어
(전도자, 건축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성경을 도면으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그리고 마땅합니다!). 한 예로, 바울도 하나님의 성경을 도면 내지는 틀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개역개정 디모데후서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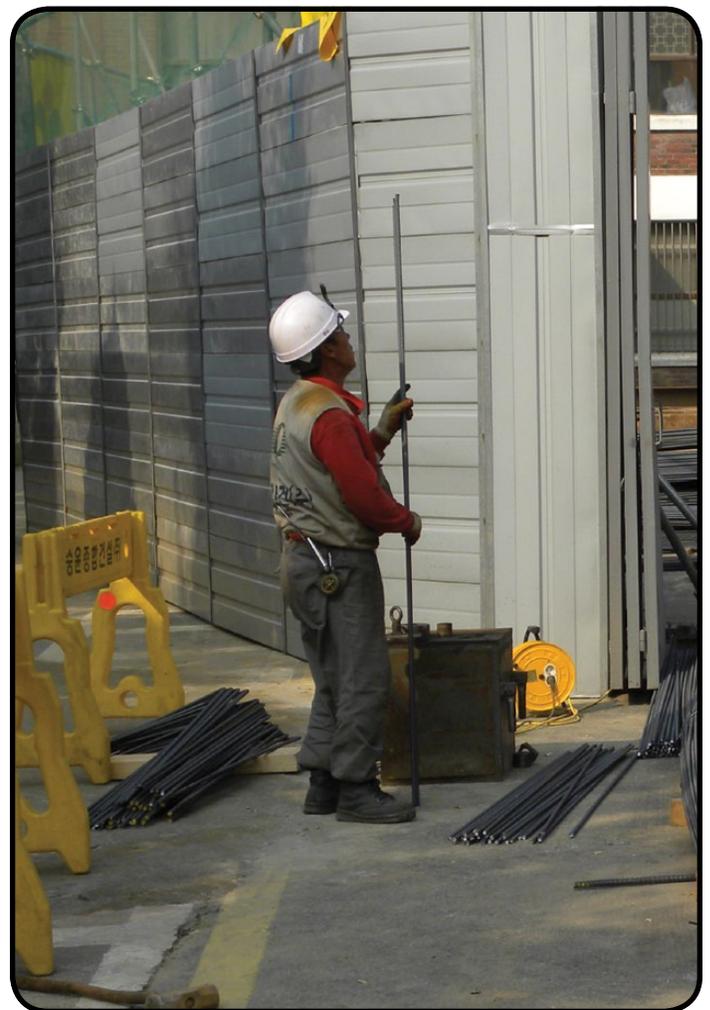
☞ **조**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들라(킹제임스 흠정역 딤후 1:13)

기록된 말씀 속에 사도들이 정립해 놓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한 말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데살로니가후서 2:15).

에베소서 2:19-22에 의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 임명된 사도들은 예수님을 도와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 사용한 그리스어의 본뜻에 따르면) 사도들이 땅에서 풀거나 묶은 것은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묶거나 풀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신(使臣) 곧 대사(고린도후서 5:20)의 자격으로 사도들은 교회에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었고, 그 본보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명령을 전달했고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 충분히 자세히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교회가 따라야 할 도면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하는 도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권을 유지하려 한다면, 신약성경 안에 사도들이 정립해 놓은 전통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개역개정 데살로니가후서 3:14).

☞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 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새번역 살 후 3:14).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명쾌하게 “그렇다!”고 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집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따라야 할 하나님의 세 부 지침은 사도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남긴 기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 속에 드러나는 사도들의 권위를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복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신명기 4:2에서 볼 수 있듯—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구약 신명기에 적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무엇을 없애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시록 22:18-19).



조금씩 되짚어 보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디모데후서 1:13과 데살로니가후서 2:15에 따르면 성경을 도면 내지는 틀로 삼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가? (예, 아니오)
2. 데살로니가후서 2:15과 데살로니가후서 3:14에 따르면 교회는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이 확립한 _____을/를 순종하며 지켜야 한다.
3.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 곧 대사였고, 교회에 본보기를 마련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모두는 사도들이 세운 본보기를 따라야 하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역시 사도들이 전달한 명령을 _____야 하며, 신약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서 사도들이 행한 바를 뒤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린도후서 5:20).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19).

4. 데살로니가후서 3:14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사도들이 남긴 기록(곧 서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_____ 말아야 한다.
5. 신약성경에는 오늘날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 충분한 만큼의 정보가 담겨 있는가? (예, 아니오)
6. 계시록 22:18-19 및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_____ 해도 안 되고 _____ 도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신명기 4:2).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 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사도들의 기록 속에 구체적으로 밝혀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자신은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면서 설립한 교회의 일원입니까? (예, 아니오)
- 나. 신약성경은 도면과도 같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신약 성경이라는 도면에 따라 건축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 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신약성경이라는 도면에 따라 건축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집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까? (예, 아니오)
- 라. 집 근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경우, 여러분 혼자라도, 혹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 가. 전세계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두 똑같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 나. 디모데후서 1:13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고 하는 도면에 나와 있는 본, 곧 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 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집의 모양이나 구조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로는 누가 또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했나?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결론

이제 우리 자신의 상황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이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집에다 무엇인가를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으신 그 무엇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집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으로 판명될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이 장로와 집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자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하나’ 뿐이라고 가르치나요? 하나뿐인 교회가 있고, 믿고 침수 세례 받은 사람이 그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필자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셨다면,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당장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찾기 위한 이번 장에서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집을 하나 갖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집이 바로 그분의 교회요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운 것은 그 집을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집이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한다면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의 도면을 따라야 하며 거기 제시된 계획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집에 속한 지체(肢體)입니까? 하나님 집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본을 변경해 가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직 ‘하나’의 집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유일하게 참된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 번 찾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곳에 그런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세울 때 따라야 할 참된 가르침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오늘 당장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곧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가르침 위에 세운 교회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제5장 되짚어 보기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이번 장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디모데전서 3:15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_____의 기둥과 터’이다.
2.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_____이기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3.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에서 는 구성원도 독특해서, _____(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_____(이)라는 이름 속에 간직되어 있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한다.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1)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사도행전 11:2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베드로전서 4:16).

요점 확인하기

1. 골로새서 1:17-18에 따르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는? _____
2. 주님의 집은 독특한 _____을/를 지니고 있어 주님의 집이라고 자처하는 다른 집들과 눈에 띄게 다르다.
3.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면처럼 따를 경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집(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한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와 ‘요점 확인하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 교회는 하나님의 집임
- 예수님께서 교회로 지으셨음
-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갖고 계심
-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함
-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음(감독이나 목자라고 부르기도 함)
-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는 악기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림
-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는 매 주간의 첫날에 주님의 만찬을 거행함
-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해 온 유일한 ‘신조집’은 성경책임
-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가르침, 하는 일, 구성원, 제사장 직책 등에서 독특성을 지니고 있음

깊이 있게 알아보기

아래에 실은 자료는 이번 장에서 다룬 주제에 관해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실은 내용 가운데는 이번 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앞부분 생략)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1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권능을 떨치며]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마가복음 9:1).

바울이 온 이태를[=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사도행전 28:30-31).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 에게(뒷부분 생략. 고린도전서 1:2).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라] (개역개정 고린도전서 15:24-25).

예 **조**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새번역 고전 15:24-25).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골로새서 1:13).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디모데전서 3:14-15).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1. 마가복음 1:15에 보면 예수께서는, ‘한참 후에야’ 교회(곧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가? (예, 아니오)
2. 마가복음 9:1에서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 생존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아니오)
3.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28:30-31에 따르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전파했는가? _____의 _____
4.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바치실 것이다(고린도전서 15:24-25). 그것이 무엇인가? _____
5.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14-15에서) ‘하나님의 집’과 ‘교회’가 같은 것이라고 말했는가? (예, 아니오)



교회 지체(肢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태복음 5:11-1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태복음 10:22).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개역개정 요한복음 7:7).

☞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새번역 요 7: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요한복음 15:18).

제자들이 안디옥[=안티오크]에서 비로소[=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사도행전 11:26하).

[아그립바 왕이여, 나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나이다] (사도행전 26:11).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개역개정 사도행전 26:28).

☞ 그 때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니라] (킹제임스흠정역 행 26:28).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 했노라] (개역개정 갈라디아서 1:13).

☞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니다(새번역 갈 1:13).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베드로전서 4:16).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6. 마태복음 5:11-12, 요한복음 15:29, 마태복음 10:22 등의 성경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 세상 사람 대부분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대하리라고 하셨는가? (예, 아니오)
7.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무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나? _____
8. 사도행전 26:28을 볼 때 이방인 정치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적이 있는가? (예, 아니오)

9. 주님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베드로전서 4:16)이라고 불렀는가? (예, 아니오)

10. 갈라디아서 1:13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10-11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11. 사도행전 11:26에 따르면 10번 문제의 ‘성도[들]’을 일컫는 또 다른 용어가 있다. 그 용어는 무엇인가? _____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개역개정 사도행전 20:28).

☞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킹제임스흠정역 행 20:28).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집사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개역개정 디모데전서 3:8-13).

☞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새번역 딤후전 3:13).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디모데전서 5:17).

내가 너를 그레데[=크레타]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

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쁘[=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가르침/교리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디도서 1:5-9).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다스리던]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히브리서 13:7).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12. 디도서 1:5-9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 장로들(=목자들=감독들)이 있는 것인가? (예, 아니오)
13.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의 감독들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20:28에서 배울 수 있는가? (예, 아니오)
14. 디도서 1:5-9에 따르면 장로(=목자=감독)가 되어 섬기는 성인 남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가? (예, 아니오)
15.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일꾼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가? (예, 아니오)
16. 디모데전서 3:8-13에 따르면 집사가 되어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명시된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예, 아니오)
17. 히브리서 13:7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인 장로들(=감독들)을 존경하고 그분들 말에 복종해야 하는가? (예, 아니오)



교회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24)

말씀을 함께 나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마태복음 10:27).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라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개역개정 사도행전 10:42).

☞ **☞**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

아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사변역 행 10:42).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개역개정 로마서 10:14-15).

☞ **☞**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킹제임스흠정역 롬 10:1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린도후서 4:5).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책망하며] 경계하며[=꾸짖고] 권[면]하라(디모데후서 4:2).

기도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말하기를],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1:21-22).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 (마가복음 1:35).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20-21).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로새서 4:2)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개역개정 야고보서 5:16).

☞ **☞**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킹제임스흠정역 약 5:16).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줌

성도를 위하는 연보(捐補)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린도전서 16:1-2).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6-7).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누가복음 22:14-20).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감사를 드리신 뒤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니라(고린도전서 11:23-26).

노래로 찬양하며 함께 성장함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린도전서 14:15).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개역개정 에베소서 5:18-19).

☞ ☞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라(킹제임스흠정역 엡 5:19).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 요한복음 4:24에 따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_____와/과 _____(으)로 드려야 한다.
- 로마서 10:14-15에 따르면 설교는 복음을 퍼뜨리는 데 중요한가? (예, 아니오)
-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해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5의 가르침인가? (예, 아니오)
- 디모데후서 4:2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때를 _____든지 _____든지 늘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 마가복음 1:35과 요한복음 17:20-21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는 중요한 것이었나? (예, 아니오)
- 골로새서 4:2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_____해야 한다.
-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야고보서 5:16의 가르침인가? (예, 아니오)
- 고린도전서 16:1-2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_____에 따라 주님께 돌려드리게 되어 있다.
- 바울은 고린도후서 9:6-7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_____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다.
- 누가복음 22:14-20에 따르면 주님의 만찬은 사람이 제정한 것인가? (예, 아니오)
- 고린도전서 11:23-26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을 통해 무엇을 전파하는 것인가? _____의 _____
- 고린도전서 14:1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깨친 _____으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한다.
- 에베소서 5:18-19에서 바울이 전한 명령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_____을 악기로 삼아 선율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가 하는 일

복음을 전함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개역개정 마태복음 9:37-38).

☞ **☞**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킹제임스 흠정역 마 9:37-38).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기록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뜻과 은혜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드러났으니] 그는 사망[=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디모데후서 1:8-10).

함께 성장함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로마서 14:18-19).

☞ **☞**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새번역 롬 14:19).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보]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개역개정 데살로니가전서 5:11-13).

☞ **☞**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새번역 살전 5:12하-13).

이웃을 돌아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개역개정 마태복음 7:12).

☞ **☞**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새번역 마 7:12).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마가복음 12:31).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라디아서 6:10).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31.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_____ 되 일꾼이 _____ 기 때문”(마태복음 9:37-38)이다.
32. 마태복음 28:19-29과 마가복음 16:15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온 세상의 나머지 지역에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예, 아니오)
33. 디모데후서 1:8-10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복음을 통해—_____을/를 폐하시고 _____을 가져오셨다는 것이다.
34. 로마서 14:19절에서는 ‘_____의 일과 서로 덕을 _____는 일’을 힘쓰자고 했다.
35. 데살로니가전서 5:11-13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장로들(=감독들)을 알아보고 귀히 여겨야 하는가? (예, 아니오)
36.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 주기 바라는 바로 그 일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7:12의 가르침인가? (예, 아니오)
37. 마가복음 12:30-31의 끝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온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 _____ 계명’이 없기 때문이다.
38. 갈라디아서 6:10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인만을 도와야 하는가? (예, 아니오)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교회가 전하는 가르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6-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개역개정 로마서 6:17-18)

☞ ☞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킹제임스흠정역 롬 6:17-18).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범사에 그[분]에게까지[=그리스도 안으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에베소서 4:14-1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개역개정 디모데전서 4:6).

☞ ☞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새번역 딤후 4:6).

내가 이를 때까지 [성경]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디모데전서 4:13).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디모데전서 4:16).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교리를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생겨] 나[느니라](디모데전서 6:3-4).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꾸며낸] 이야기를 따르리라(디모데후서 4:3-4).

오직 너는 바른 교훈[=가르침]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디도서 2:1).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가르쳐]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청렴]과 단정함과[=위엄을 갖추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개역개정 디도서 2:6-8).

☞ ☞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 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킹제임스흠정역 딤후 2:6-8).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요한2서 1:9-11).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39. 요한복음 7:16-17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_____ (에)게서 온 것이다.
40. 로마서 6:17-18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가? (예, 아니오)
41. 에베소서 4:14-16을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하면 _____ 밀려다니며 요동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42. 디모데전서 4:6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_____'으로 양육 받아야 한다고 한다.
43. 디모데전서 4:13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_____ 일에 전념하라고 했다.
44. 디모데전서 4:16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스스로의 가르침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_____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 디모데전서 6:3-4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충실히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_____ 한 사람이요

_____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46. 바울은 디도에 편지하기를 ‘_____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했다.

47. 바른 가르침과 관련하여 우리가 간직해야 할 네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 킹제임스흠정역 디도서 2:6-8에 근거하여 쓰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비난의 여지가 없는 _____

48. 요한2서 9~11절을 볼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및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그리스도인을 위해 중보자요 대변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代贖物)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적절한 때에] 주신 증거니라(디모데전서 2:5-6).

그러나 이제 그[분 그리스도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중재자]시라(히브리서 8:6).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중재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유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히브리서 9:15).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변호해 주시는 이]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심이라(요한1서 2:1-2).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49. 디모데전서 2:5-6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몇 분이 계시는가? _____ 분

50. 디모데전서 2:5-6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는?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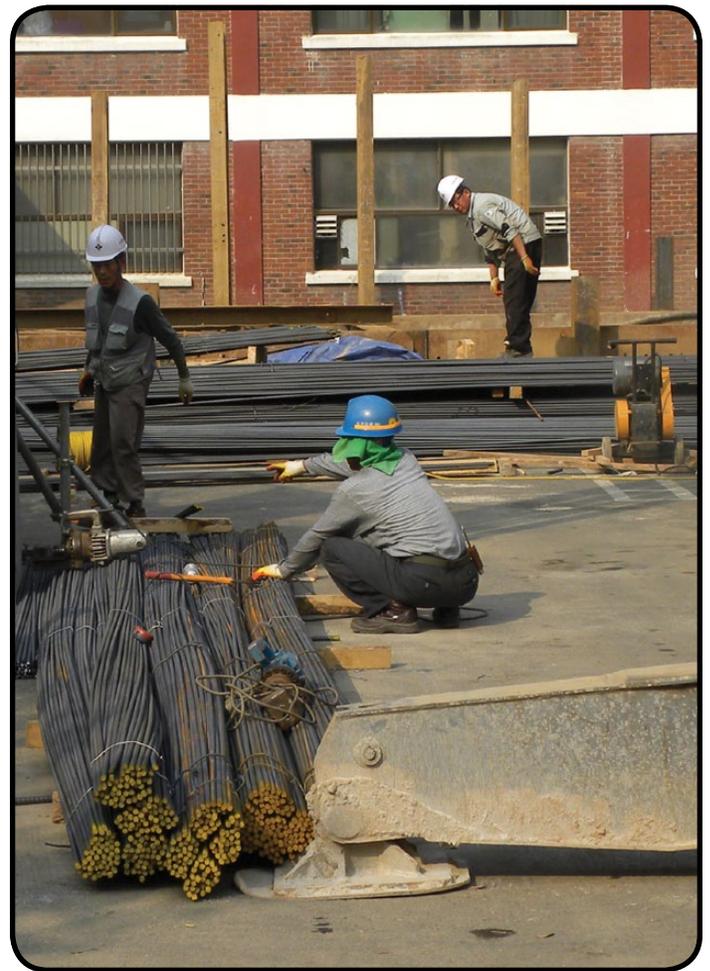
51. 히브리서 9:15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심 후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는가? (예, 아니오)

52. 히브리서 9:15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_____ 한 _____의 약속을 얻게 된다.

53. 요한1서 2:1-2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늘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는 이 대변자는 누구신가?

54. 요한1서 2:1-2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상의 _____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

알림 | ‘깊이 있게 알아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오늘날에는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는 의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아기 때 세례/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침례는 어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한 참된 가르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례나 침례를 '나도' 받아야 하는 것일까?"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례나 침례를 이미 받았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의 합당한 이유에 근거해서 받았습니까?

서론

물! 물은 가장 소중한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이 없다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이 꼭 있어야 합니다. 물은 갈증을 해소시켜 주고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 줍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하나님께서 물을 선택하신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지구를 깨끗하게 한 홍수이든, 유대교에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결례(潔禮)에 사용한 물이든, 물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 계획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1세기에는' 왜 믿음을 갖게 되면 물 속에 잠겼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물 속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례나 침례를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침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아래에 제시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먼저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을 읽는 분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오늘 끝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 아닙니다
 - 잘 모르겠습니다
-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과거 한 때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던 적이 있습니까?
 -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 잘 모르겠습니다

- 이번 항목은 구원을 받았다고 답하신 분과 과거 한 때 구원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답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 어떠한 절차를 밟고 무슨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
-
-
-
-

- 세례/침례를 받았습니까? 세례/침례를 받았다면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까,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물 속에 잠기는 것이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세례/침례를 받았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물을 뿌려 주는 세례를 받았습니.
 - 물을 부어 주는 세례를 받았습니.
 - 물 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
- 아닙니다. 아직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

- 세례/침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린이 때였습니까, 아니면 성숙해진 뒤였습니까? 다시 말해, 세례/침례를 받을 당시 아기였습니까, 성인이었습니까?

- 아기 때 받았습니.
- 성숙한 상태에서 받았습니.

- 이번 항목은 세례/침례를 받은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언제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까? 세례/침례를 받기 '전'입니까, 세례/침례를 받은 '후'입니까?

- 세례/침례를 받기 전에 구원 받았습니.
- 세례/침례를 받은 후에 구원 받았습니.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 세례/침례를 받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위에서 답한 내용을 옆두에 두고 세례/침례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놓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독자의 경우에는 위의 여섯 항목에 대하여 자기가 작성한 답변과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우리가 거듭해서 보아 온 것처럼—‘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요한복음 8:32). 사람이 만들어 낸 계명과 전통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뜻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진심에서 비롯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는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침례에 관한 참된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를 찾는 여정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 보기로 합니다.

1. 세례/침례란 무엇인가?
2. 세례/침례를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3. 세례/침례는 누가 받는 것인가?
4. ‘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례/침례를 받았나?

그러면 세례/침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침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원래 물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세례 또는 침례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바티조’는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꽤 흔하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를 신앙에 관한 의미로 국한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가 침몰하면, 배가 ‘바티조’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몇 가지 종류의 세례가 나옵니다. 요한이 물 속에서 베포 세례, 불 속에서 받는 세례, 성령님으로 받는 세례 등이 그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례가 어떤 것인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세례가 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온’ 일에 대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네스 랫클리프
(장로)

예를 들어, 1세기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에디오피아[=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칠 때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나 가사[=가자] 쪽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수레[=마차]에 앉아 구약성경 중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묘사된 고난에 담긴 희생적 성격에 관해 읽고 읽던 에디오피아 사람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이나? 자기를 가리킵이나, 타인을 가리킵이나?”(사도행전 8:34). 이 질문에 대해 빌립이 무어라 답변했는지 주의 깊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8:35).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보면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다 보면 주님의 신성, 능력, 사랑,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 관해 전했을 때 에디오피아 사람이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더라] (사도행전 8:36-38).

1) 헬[라어], 또는 침례 2) 어떤 사본에, 37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 38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킹제임스흠정역 행 8:36-38).

위에 인용한 기사에서 우리는, 1세기 당시 그리스도에 관해 전할 때 세례/침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사실과 아울러, 세례/침례의 형식에 관해서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속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침례를 베풀 때는 그 사람을 물 속에 완전히 가라앉게 함으로써 물로 완전히 뒤덮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장사되어 묻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세례/침례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분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6:3-4).

1) 헬, 또는 침례

위에 인용한 말씀과 관련하여, 저명한 성경 학자이자 감리교회 사역자인 아담 클라크 역시 신약성경에 나타난 세례의 형식은 물에 잠기는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침수례를 언급하는데, 이 의식을 행함으로

써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땅 속에 묻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도 같이 물 속에 묻히게 된다. 한편 물에서 나오는 것은 몸의 부활을 표상하는 것이었다(《아담 클라크 주석》 골로새서 2:12. 인용 부분 번역은 이 책 옮긴이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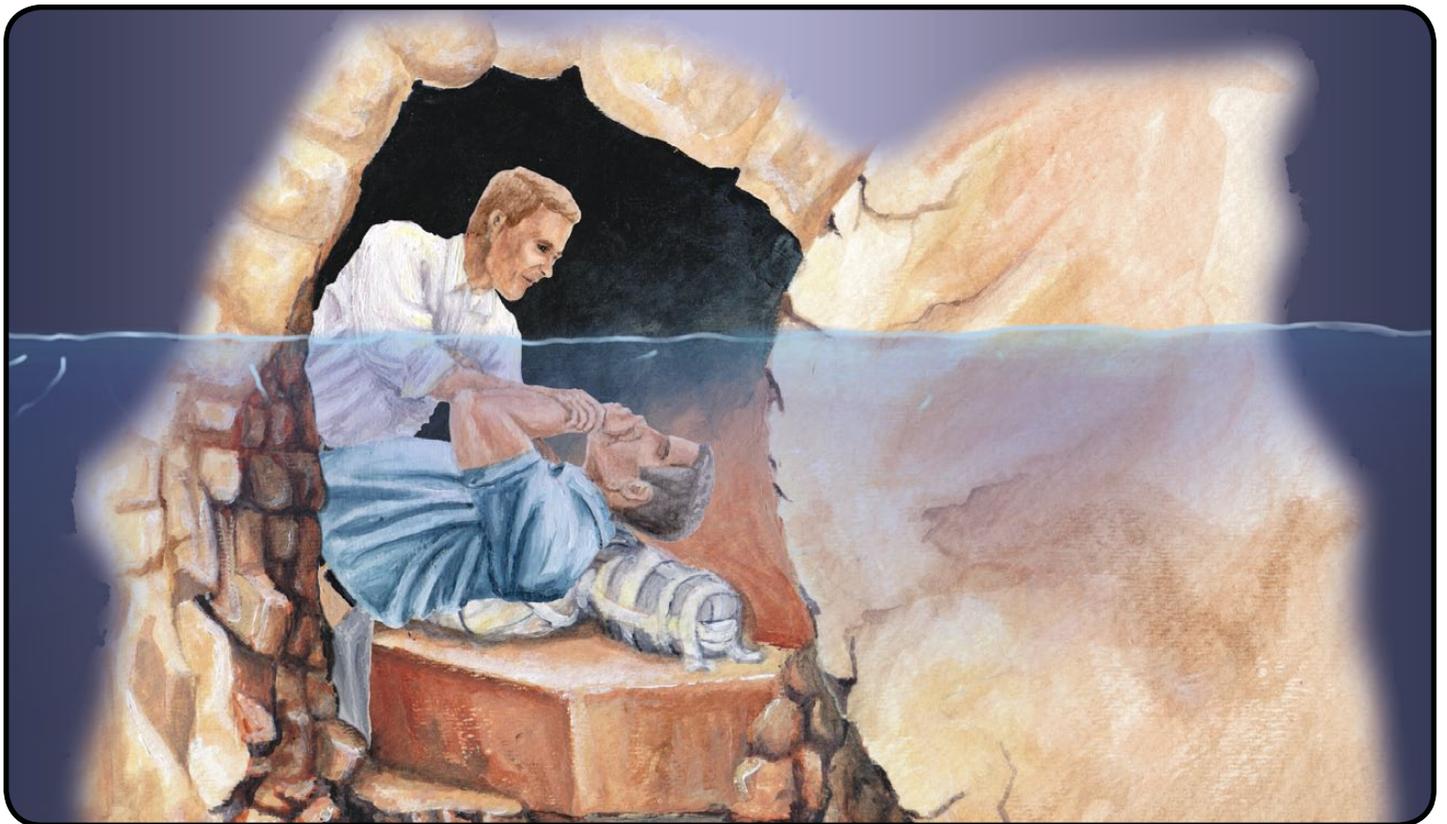
장로교회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칼빈이 세례 시행 방식에 대해 한 말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뱃티조’라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침수이며, 고대 교회에서 침수례를 행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기독교 강요》 4.15.19. 존 알렌의 영역본 1816년 미국판 제3권 343쪽에서 중역함).

☞ ☞ 그러나 ‘세례를 준다’(baptizndi)는 말은 물에 잠기는 것(mergere)을 의미하며, 고대 교회에서도 물에 담그는 의식(mergendi ritum)이 시행되었음이 분명하다(《기독교 강요》 4.15.19, 고영민 옮김, 제4권(하) 104쪽).

오늘날에 보면 물을 뿌리거나 붓는 형태의 세례를 채택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성경 어디를 보아도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법은 원래의 세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살수나 관수는 원래 그리스도교에 없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그리스어에는 ‘뿌리다’와 ‘붓다’에 해당하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는 말이 따로 있었습니다. ‘뿌리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라이노’입니다. 예를 들어 ‘피를 뿌린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붓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케오’입니다. 두 단어 모두 신약성경을 기록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이었지만 침례와 관련지어 이 두 단어를 사용한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와 달리 침례와 관련하여 사용한 단어는 ‘뱃티스마’였으며, 이 단어는 ‘침몰하다’, ‘가라앉다’, ‘잠기다’ 등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릭 브럼백크
(성경 강사, 전도자)

(사도행전 2장과 요한복음 3장의 기록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세례/침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물 속에 잠길 수 있을 만큼 많은 물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겠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이 점에 대해 궁금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필자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 속에서 세례를 베푸는다고 해서

아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수 방식으로 베푸는 세례는 욕조라든가 물받이 통 등 아주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1세기에 이스라엘에도 충분한 물이 있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강물과 냇물이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셋째로, 유대 사회에서 정결 의식을 강조한 결과 주요 도시와 예배 장소 주변에 이미 (‘미크베’라고 하는) 침수 욕조가 수백 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해도 예수님 시대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침수 욕조가 150개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침례란 무엇인가?” 하는 이번 장의 첫 번째 주된 질문과 관련하여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침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세례/침례란 무엇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하나님께서는 _____ 함과 깨끗하게 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물을 사용하셨다.
2. 사도행전 8:38에 따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당시 빌립과 내시는 물 _____ [=속으로] _____ 갔다.
3. 로마서 6:3-4에 따르면 세례/침례는 장례와도 같은 것인가? (예, 아니오)
4. 초대교회에서는 침수례를 행한 것이 확실하다. (예, 아니오)
5. ‘뿌리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라이노’이다. 신약성경에서 세례/침례와 관련하여 ‘라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가? (예, 아니오)
6. ‘붓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케오’이다. 신약성경에서 세례/침례와 관련하여 ‘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예, 아니오)
7. 그리스어 단어 ‘뱃티스마’는 ‘침몰하다’, ‘가라앉다’, ‘_____’ 등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8. 유대 사회에서 정결 의식을 강조한 결과 주요 도시와 예배 장소 주변에 이미 (‘미크베’라고 하는) _____ 가 수백 개 마련되어 있었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 가. 세례/침례를 받았습니까? 세례/침례를 이미 받았다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본에 따라 ‘올바르게’ 세례/침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 나.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법으로 ‘세례’를 받은 경우, 신약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은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침수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 가. 바울이 로마서 6:3-4에서 전한 명령에 따를 때 세례/침례는 몸 전체가 물 속에 잠기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토론해 보자.
- 나. 어떤 사람이 살수나 관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다. 존 칼빈과 아담 클라크가 세례의 형식에 관하여 갖고 있었던 생각은? 세례의 형식에 관한 견해가 교단에 따라 다르게 된 이유는?



세례/침례를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세례/침례를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침수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죄인이었던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마법과도 같은 신비한 무엇인가가 물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한 번, 성경을 안내서로 삼아 진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셋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대에 따라 피와 물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영적 정화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약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개의 시대를 일반적으로 족장 시대(B.C. 4000년 무렵부터), 모세 시대(B.C. 1500년 무렵부터), 그리스도 시대(A.D. 33년 무렵부터)라고 부릅니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여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수가 되어 온 땅을 덮었던 그 물이 그리스도 시대에는 세례/침례를 상징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

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ʼ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개역개정 베드로전서 3:20-21).

☞ **㉠**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ʼ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새번역 뱀전 3:21).

1) ʼ 또는 ‘침례’ [새번역 상반절의 표현에 주목할 것. 그런데 이번 장의 내용을 더 공부해 보면—새번역 하반절의 내용과는 달리—침수 세례 후에 선한 양심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음—옮긴이]

족장 시대에는 의로움의 상징으로, 그리고 언약을 맺는 표로 동물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등을 통해 그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정결과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이집트 탈출] 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던 것이지요(출애굽기 12장). 피의 사용에 대한 특별한 강조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기도 했고, 제사장에게 피를 뿌리기도 했으며, 사람들에게도 종종 피를 뿌렸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피와 아울러 물도 모세 시대에 정결을 상징하는 데 쓰였습니다. 성전(또는 성막)에서 섬기게 된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데 물이 사용된 것입니다(레위기 8:6). 문둥병[=한센병]에 걸렸다 나온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로 받아들이기 전에도 물을 이용하여 정결하게 했습니다.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에 피와 물이 사용된 방식은 신약 시대에 사용된 방식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그분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흘린 피이며, 죄의 노예가 되어 버린 우리의 자유를 다시 사기 위해 대신 지불하신 값이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18-19).

예수님의 피는 속량하는 피일 뿐 아니라 의롭게 하는 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로마서 3:23-26).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말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무죄로 되었다’, ‘면소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접하게 되는 시점이 있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유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지요.

노먼 스타링
(전도자)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피와 물 ‘두 가지 모두’를 써서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새 언약 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와 물 ‘두 가지 모두’를 써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십니다.

피와 물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침수례에 쓰이는 물이 어떻게 함께 구원을 가져오는지에 관해 성령님께서 밝혀 주신 내용입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은 복음, 곧 성경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새번역 로마서 3:23).

여기서 ‘모든’이란 말에는 전 계층이 다 포함되고, 각국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로마서 3장을 계속해서 읽은 다음 5장까지 함께 읽

하나님의 경륜

족장시대

BC 4000년 무렵



모세 율법의 시대

BC 1500년 무렵



이삭

유대인에게는
모세 율법 적용

그리스도의 시대

AD 33년 무렵



오늘날

이스라엘

이방인에게는
족장시대의 법 계속 적용

어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구원을 얻은 다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義)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로마서 6:18).

여기서 우리는 죄를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를 섬기게 되었음을 배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킨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죄를 깨끗하게 해 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접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져 ‘믿기만 했다는 이유’로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실천’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귀신들[조차]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중간 생략)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야고보서 2:19-20, 24).

야고보가 기록한 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주님께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크게 자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과 사람이 부여한 계명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한복음 3:20-21).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고 계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스스로의 힘만으로는—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1세기 당시의 로마 교회 사람들도 순종한 ‘후’에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순종한 대상이 ‘무엇’이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실천에 옮겼길래’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가르침]의 본[=틀]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도다(로마서 6:17).

‘무엇’에 순종했다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가르침의 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았다는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배운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점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심이라] (고린도전서 15:1-4).

로마서 6장과 마찬가지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진 어떤 것(곧 맡겨진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겼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기초가 되어 죄인이 확실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메시지는 1세기에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전파한 내용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서는 그분께서 당하신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형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확실히] [그분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8-9).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율법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죄인들을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잠깐 동안이지만—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까지 겪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피에 다다른 사람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죄’요 ‘죄에서 해방되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노먼 스탈링
(전도자)

복음의 메시지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에 관한 소식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지낸 일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낼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첫날이 되기까지 묘실에 놓혀 있던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과 그분께서는 진정 메시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담겨 있는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사탄과 죄와 죽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승리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깊은 골짜기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에 따르면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놓아 주신 다리를 건너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르침의 본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본을 따라서 죄인들도 ‘실제로’ 죽고, ‘실제로’ 장사되고, ‘실제로’ 부활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7

절을 다시 한 번 읽고, 죄인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가르침]의 본[=틀]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도대] (로마서 6:17).

로마의 성도들이 순종한 ‘것’은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경험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의 ‘틀’(다른 말로는 본)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성도들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과도 같은’ 어떤 일을 순종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은 물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 비율이 한 말을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로마서 6:3-5).

1) 헬[라어], 또는 침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함과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절차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가, 침수례에 사용하는 물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로마에 살던 그 사람들도 죄에 빠진 옛 사람에 대해 죽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말이지요. 예



수님께서 동굴 속에 장사되었던 것과도 같이, 로마에 살던 그 사람들은 물로 된 무덤 속에 침수 세례를 통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듯 로마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침수세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부여 받고는 물 속에서 나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침수세례 ‘전’에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나, 침수세례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침례는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으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침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침수세례가 행해지는 물을 통해,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었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저 짹짹 놀라기만 할 성질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간 생략)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5).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물로 ‘태어나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침수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18절을 보더라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려면 순종하여 ‘침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되심, 부활하심의 과정과 유사한 가르침의 틀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는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아래에 인용하는 말씀이 지니고 있는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을 받는[=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7-8).

복음은 ‘순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고, ‘실제로’ 장사되고,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죄인인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침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사도행전 2:38) 물 속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골로새서 2:12).

여기서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인가?” 마법과도 같은 신비로운 힘이

물—특히 세례/침례탕 속의 물—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 ‘그 자체가’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물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성경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언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세례가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세례, 또는 침례가 ‘모종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노아가 구원을 얻던 당시의]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많은 물에서 받는 세례요, 그러한 세례가 지금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침수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응답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는 것이고 말입니다. 침수 세례를 받게 되면 때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받게 됩니다. 침수 세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사도행전 2:38) 죄를 씻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사도행전 22:16). 이 때 우리 죄를 씻어 없애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계시록 1:5).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와 접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고 회개한 상태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침수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B. J. 클라크
(전도자)

[인터뷰 응답자의 취지를 살려 번역한 결과 개역개정판 및 새번역의 내용과 다소 달라졌음—옮긴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야 깨끗하게 된다는 원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이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만 장군은 나병[=한센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새번역 각주에서 이 책 옮긴이가 인용함]. 열왕기하 5장 1~14절에 따르면 나이만 장군은 자신이 앓고 있던 끔찍한 피부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무언가 대단한 선언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이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나이만 장군은 요단강을 통해 자기가 깨끗하게 되리라는 말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단강 물 자체가 악성 피부병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하여 그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람[=시리아] 장군 나이만의 몸은 그 즉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앓고 있던 피부병은 그렇게 해야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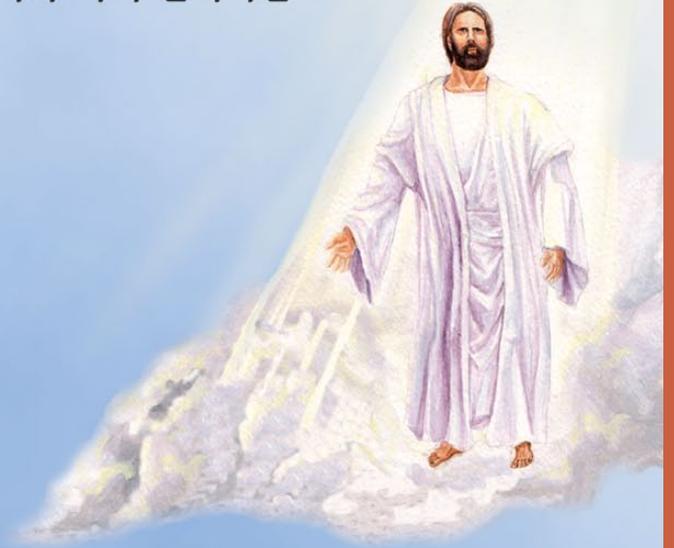
복음을 구현하시다

고린도전서 1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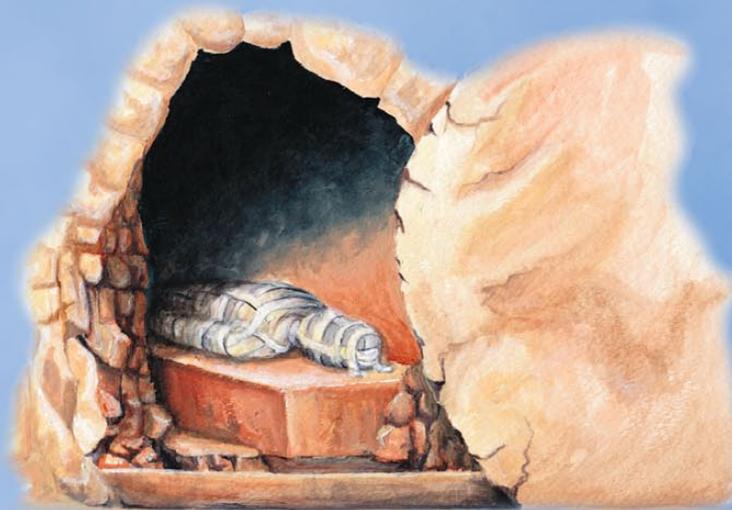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장사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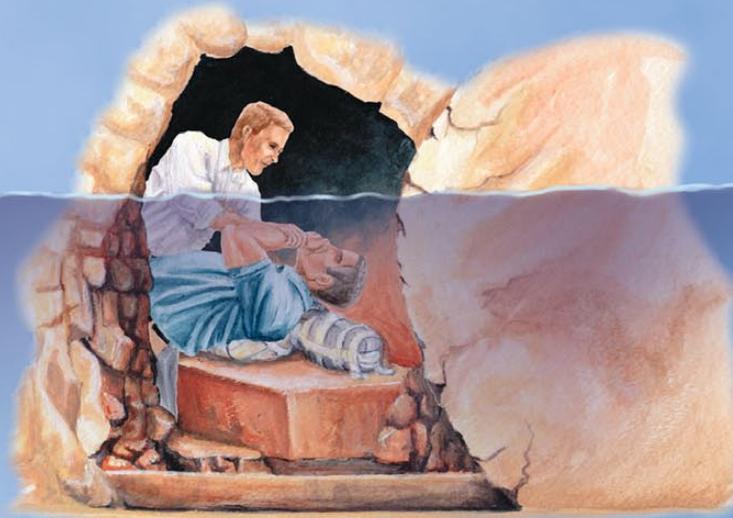


많은 물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을 재현하다

(복음에 순종함)

로마서 6:3-4

침수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회개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물 속에 장사되어 죄를 깨끗이 씻은 다음
일어나 물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됨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죄에 대하여
죽음



물 속에 장사됨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오늘날,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을 통해 죄라고 하는 피부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진정 신뢰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언제’ 하라고 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셨는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세례/침례를 받는 목적에 대한 답을 찾아오면서 우리는 세례/침례를 받는 목적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바로 침수 세례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천국에서 거할 영원한 집을 상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온갖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입니다(디모데후서 2:10). 구원을 얻으려면—‘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알프레드 워싱턴
(전도자)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침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인이 침수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회심 과정을 밟아 온 경우,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세례/침례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목적을 갖고 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세례/침례를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_____ 을/를 사용하여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한편으로 노아와 그 가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
2. 베드로전서 3:20-21에 따르면, 땅을 깨끗하게 했던 노아 시대의 홍수와 관련하여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노아 시대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_____ 을/를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고 했고, 그 물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_____ 을/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3. 모세 시대에는 동물의 _____ 을/를 통해 정화와 속량을 상징했다.
4. 모세 시대에는 _____ 이/가 정결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성전에서 섬기게 된 제사장들을 정결케 할 때, 그리고 문둥병[=한센병]에 걸렸다 나온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로 받아들이기 전에도 물을 이용하여 정결케 했다.
5. 베드로전서 1:18-19과 로마서 3:23-26에 따르면 그리스도 시대에는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_____ 을/를 흘리셨다.
6. 로마서 3:23-26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_____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7. 신약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_____ 또는 방면(放免)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8. 구약성경 시대에 피와 물을 사용해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신약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_____ 와/과 _____ 을/를 사용해 죄인을 _____ (하)신다.

9. 야고보서 2:24에 따르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_____ 으로 _____ 은 될 수 없다.

10. 마태복음 7:21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_____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다.

11. 로마서 6:17-18에 따르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 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_____ 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2.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_____ 의) _____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개역개정 로마서 1:16).

☞ **☞**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킹제임스흠정역 롬 1:16).

13. 고린도전서 15:1-4에 따르면 바울이 선포하여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달한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부활하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예, 아니오)

14. 데살로니가후서 1:7-8에 따르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_____ 을/를 모르는 자들과 _____ 에 _____ 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15. 로마서 6:17과 고린도전서 15:1-4에 따르면 사람이 실제로 죽고, 실제로 장사되고, 실제로 부활해야 복음에 순종하는 것인가? (예, 아니오)

16. 로마서 6:3에 따르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_____ 을/를 받아야 한다.

17.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침례를 받아야 죄 _____ 을/를 받게 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2)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개역개정 사도행전 2:38).

1) 헬[리어], 또는 침례 2) 또는 성령을 선물로

☞ **☞**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킹제임스흠정역 행 2:38).

18. 요한복음 3:3과 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_____ 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다.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19. 다음에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_____ 이/가 죄를 씻어 준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ʼ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사도행전 22:16).

1) 헬[라어], 또는 침례

20. 베드로전서 3:21에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을 그리스어 본문에 따라 이해하면, 세례/침례가 지금 우리를 _____ 한다.

21.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구원을 포함하여)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 아니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에베소서 1:3).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2:10).

22.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_____ 을/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ʼ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라디아서 3:27).

1) 헬, 또는 침례

23. 고린도전서 12:13에 따르면,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침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_____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가. 물 속에 잠겨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나. 만약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 받기 ‘전’에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받은 침례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곧 구원을 얻기 위해) 받은 침례였을까요? (예, 아니오)

다. 세례/침례를 이미 받았지만, (침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자 한다는) 올바른 이유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예전에 받은 세례/침례가 그릇된 것일 수도 있을까요? (예, 아니오)

라.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예, 아니오)

마. 많은 물 속에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가. 로마서 6:3-5, 그리고 다음에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어떤 방법을 통해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와 접촉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도다] (개역개정 계시록 1:5).

☞ 또 진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도다] (킹제임스흠정역 계 1:5).

[영어 성경 제임스 왕 역본과 뉴킹제임스 판에는 ‘그분 자신의 피 안에서’ 씻으셨다고 되어 있음—옮긴이]

나. 요한복음 3:3과 5절에 따르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침수 세례를 받으면 ‘그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일까?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라는 실제 사건이 어떻게 죄인이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도 동시에 작용하여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게 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은 세례/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는 명령과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을까?



세례/침례는 누가 받는 것인가?

세례/침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 세례/침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기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기들도 세례/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①세례를 베풀라 (마태복음 28:19).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②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가복음 16:15-16).

1) 헬, 또는 침례

위에 인용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가 선행되어야만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세례/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믿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또는 배워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이른바 ‘세례 예비자’를 상대로 한 교리 학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말함—옮긴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45).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세례/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

은 자기가 배운 내용을 ‘믿어야’ 했습니다. 믿고 세례/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일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다음, 믿고(즉 전파된 그 복음을 믿고) 세례/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개역개정 로마서 10:17).

☞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킹제임스흠정역 롬 10:17).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에 따르면 세례/침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사람은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앞 부분 생략)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③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④성령의 선물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38).

1) 헬, 또는 침례 2) 또는 성령을 선물로 [이 말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음—옮긴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할 경우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마음 아파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개역개정 고린도 후서 7:9-10).

☞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새번역 고후 7:10).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변화를 뜻합니다. 죄에 빠진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 뜻에 따라 살기를 멈추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앞 부분 생략)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누가복음 9:23).

그렇다면 누가 세례/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례/침례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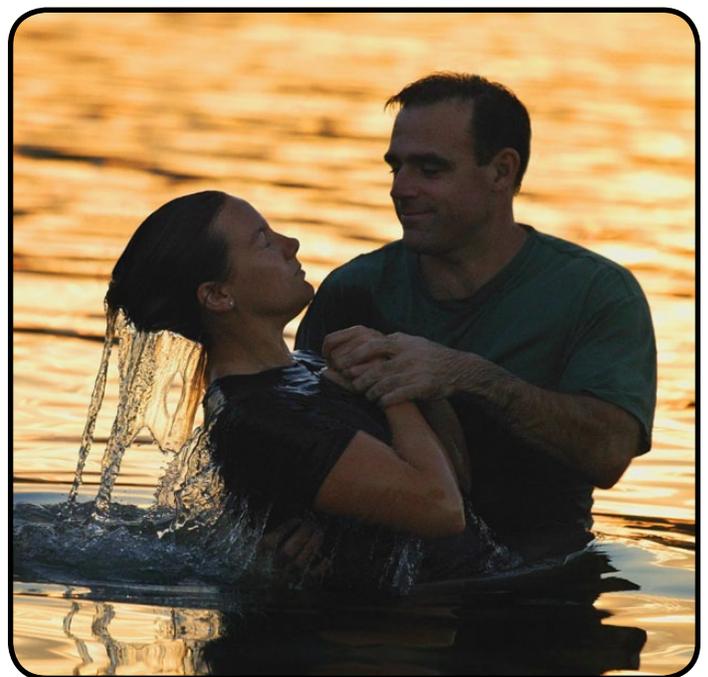
이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세례/침례를 받기에 앞서 복음에 대해 배우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례/침례를 받을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바깥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배우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한 후 세례/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에게 세례/침례를 베푸는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기에게 세례/침례를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믿고,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물론 아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기는 세례/침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세례나 침례를 베풀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도 않습니다. 침수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도 달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마가복음 16:16). 또 한 가지, 유아는 구원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아는 형벌로부터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3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왕국이라 부르기도 함.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뜻함—옮긴이). 우리는 어린 아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요. 아기는 구원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세례나 침례가 필요 없습니다. 유아는 침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침수 세례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바비 리델
(성경 강사, 전도자)



아기가 세례 내지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굳이 생각해 보자면 그 아기에겐 죄가 있어 탕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제시된 원칙은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기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요한1서 3:4). 아기는 죄를 짓지 않았기

에 세례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믿지 않았기에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B. J. 클라크
(전도자)

죄는 스스로 범하는 어떤 것이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기와 어린이는 세례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되짚어 보기 **세례/침례는 누가 받는 것인가?**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마가복음 16:16에 따르면 _____고 _____을/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2. 요한복음 6:45에 따르면 듣고 배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는가? (예, 아니오)
3. 요한복음 3:16에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 _____이심을 믿어야 한다.
4. 로마서 10:17에 따르면 믿음은 말씀을 _____에서 온다.
5. 사도행전 2:38에 따르면 죄를 _____하고 세례/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된다.
6. 고린도후서 7:9-10에 따르면 회개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예, 아니오)
7. 회개는 변화를 의미한다. _____을/를 지으며 살던 삶으로부터 의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8. 마태복음 10:32에 따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_____해야 한다.
9. 사도행전 2:38과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볼 때, 침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예, 아니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사도행전 22:16)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개역개정 베드로전서 3:21).

☞ **㉠**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새번역 뱀전 3:21상).

1) ㉠ 또는 ‘침례’

10. 아래 인용한 성경 말씀에 따를 때 죄가 유전되는 것이 가능한가? 즉 아기가 죄를 안고 태어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시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에스겔서 18:20).

11. 갓난아기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12.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갓난아기에게 세례/침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예, 아니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가. 아기 때 세례나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례나 침례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할까요? (예, 아니오)

나. 아기 때 세례나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아직 세례/침례를 받지 않은 경우) 침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예, 아니오)

라. 이 글을 읽는 분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마. 예수님의 피가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아니오)

생각 나누기

가. 갓난아기가 세례/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 용서 받아야 할 죄를 아기가 지니고 있는 경우일 뿐이다. 성경에 따르면 아기가 ‘죄’를 짓는가?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나.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아기가 세례/침례의 대상인가?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나는 ‘성경의 가르침 대로’ 세례/침례를 받았나?

이제 마지막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의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세례/침례에 대해 접근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룰 질문은, “나는 ‘성경의 가르침 대로’ 세례/침례를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침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참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례/침례를 통해서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구원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앞부분 생략)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모든 인류]에

계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가복음 16:16).

이번 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설문지 형식으로 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가 이 글을 읽는 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해 왔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죄가 짐이 되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습니까? 나는 정말로 구원을 잃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싶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구원을 얻고 자신이 구원 받았음을 확실하게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로마서 5:9). 그리스도의 보혈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10:22).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계시록 1:5).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속량할 수 있습니다(에베소서 1:7).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으려면 그분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세례/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제작진이 여러분께 간곡한 마음으로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순종하여 침례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자료를 전해 드린 개인이나 교회에 연락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침수 세례를 받으면 사람의 해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빌립보서 4:7).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침례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자기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베드로전서 1:22). 골로새서 1장 22~23절에 따르면, 믿음을 계속 간직하면—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하여 그 위에 굳게 자리잡고 있으면—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공활히 여겨주시리라는 기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떠나고 나아가 흠 없고 나무랄 것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실 순간이 오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침례를 받기로 하는 결정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기로 하는 결정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특히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의 경우—구원을 받고자 하여 밟았던 절차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례/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계명에 따랐습니까? 이번 장 시작 부분에 있는 설문지 형식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적어 놓은 답변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가르침과 일치합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배우셨나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특별한 기도문을 따라서 읽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배우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는, 세례나 침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으시나요?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물을 뿌리는 세례였나요, 물을 붓는 세례였나요, 아니면 물 속에 잠기는 침례였나요? 아기 때 세례나 침례를 받았나요, 아니면 어른이 되어 받았나요? 세례/침례에 관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은 물 속에 잠기는 것이며,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세례/침례를 받는 목적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를 씻어 없애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러한 이유에서 세례/침례를 받으셨나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례/침례를 받았나요? 아니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상태에서 세례/침례를 받았나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침수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침례를 받은 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기 ‘전’에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배우고 침례를 받은 경우, 과연 침례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담한 내용이 이 책에서 성경을 근거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금 곧 바로잡기를 권해 드립니다. 올바른 이유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복음에서 제시된 참된 가르침에 따라 침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올바른 이유에서 침수례를 받지 않은 제자들과 마주쳤을 때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에베소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행동하는 (침수례를 받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는 가운데 바울이 곧바로 알아차린 것은 그 사람들이 받은 침수례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침수례를 다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동기에서 침수례를 받았음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은 침수례라 할지라도 복음에 담긴 진리에 따른 침수 세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최선의 동기에 입각해 세례나 침례를 받습니다만, 그러한 세례/침례가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미 세례나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물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었거나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신성한 모본 내지는 틀에 따라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세례/침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틀에 따르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 복음을 들음(요한복음 6:45; 로마서 10:17)
- 복음을 믿음(마가복음 16:16; 요한복음 8:24)
- 죄를 회개함[=생각과 행동을 바꿈] (누가복음 13:3)
-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고백함(마태복음 10:32-33; 로마서 10:10; 사도행전 8:37)
- 물 속에 잠겨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음(사도행전 2:38, 22:16; 베드로전서 3:21)
- 충성스러운 삶을 죽을 때까지 지속함(계시록 2:10).

위에 정리한 단계를 그대로 밟아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갈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진리만이,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요한복음 8:32).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조금씩 되짚어 보기 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례/침례를 받았나?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위에서 다른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마가복음 16:15-16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곧 _____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며, '믿고 _____ 을/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
2.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인이 _____ 하심을 받을 수 있고, _____ 이/가 정결케 될 수 있으며, 죄를 없앨 수 있고, _____ 되어 죄 값을 치르지 않게 된다.
3. 침수 세례를 받으면 헤아릴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_____ 의 _____, 곧 교회 안에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4. 아래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진리에 순종하여 침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영혼이 _____ 하게 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개역개정 베드로전서 1:22).

☞ **☞**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킹제임스흠정역 뱀전 1:22).

5.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잘못된 세례나 침례를 받은 경우 올바르게 다시 받아야 하는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사도행전 19:1-5).

1) 헬[라어], 또는 침례

6.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신약성경에 제시된 본에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본은 다음과 같다.

1) 복음을 _____ (아래의 성경 구절 참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개역개정 로마서 10:17)

☞ **☞**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킹제임스흠정역 롬 10:17).

2) 복음을 _____ (마가복음 16:16)

3) 죄를 _____ (아래의 성경 구절 참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7:30).

4)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_____ (아래의 성경 구절 참조)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0:32).

5) _____ 을/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음(아래 성경 구절 참조)

[아나니아가 나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사도행전 22:16).

1) 헬, 또는 침례

6) _____ 스러운 삶을 죽을 때까지 유지함(아래 성경 구절 참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시록 2:10).

7. 아래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만이 우리를 _____ 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 다지기

이번 장 앞부분에서—‘세례/침례에 관한 참된 가르침’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여러분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답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가. 이 글을 읽는 분은 지금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아니오)

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라.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경우,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마. 신약성경에 따르면, 세례나 침례를 받았더라도 올바른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바. 아래의 성경 구절을 고려해 볼 때, 이 글을 읽는 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봅니까? (예, 아니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아.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_____

자. 예수님께서서는 이 글을 읽는 분이 침수 세례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글을 읽는 분도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침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겠습니까? (예, 아니오)

차.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는 다른 명칭은 모두 버리고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그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겠습니까? (예, 아니오)

카. 아래의 성경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침수 세례를 받고 나면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충성스럽게 참석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4-25).

생각 나누기

가.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의도만 좋으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려야 하는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다. 모든 종교 단체에서 세례/침례가 구원에 꼭 필요하다고 가르치는가?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 거짓된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 중에서, 침수 세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한다면?



결론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계명에 순종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 강조하기를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이 만든 계명이나 전통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개역개정 베드로전서 1:22).

☞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킹제임스흠정역 뵤전 1:22).

순전한 진리에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주신 참된 가르침에 따르면—마태복음 7장 21~2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침수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고(마태복음 28:19)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지체가 되었습니까?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아 보고, 그 교회 지체 가운데 한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여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침례 받은 다음에는 복음에 담긴 진리에 따라 예배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그 외에는 어떤 호칭도 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을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온전히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와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예수님께서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바로 지금’이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 할 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고 진리에 순종할 때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알게 되었으니 바로 지금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로 미루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5).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창조주에 관한 참된 가르침, 신앙에서의 권위에 관한 참된 가르침, 교회에 관한 참된 가르침, 하나님의 집에 관한 참된 가르침, 세례/침례에 관한 참된 가르침에 대해 합당하게 반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된 가르침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까? 참된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이제 여러분의 손에 맡깁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6장 되짚어 보기

아래 제시한 문제의 답은 이번 장에서 다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기

1. 신약 시대에는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_____ 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그리스도교에서 원래 시행하던 세례/침례의 형태에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도 포함이 되는가? (예, 아니오)
3. 로마서 6:17-18에 따르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가르침 자체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교훈[=가르침]의 _____ 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4. _____ 은/는 죄 사함을 위해 받는 것이며, 의의 종이 되는 방편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_____ 인(人)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방편이기도 하다.

5. 어린이나 유아도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 (예, 아니오)
6. 마가복음 16:16과 사도행전 2:38에 따르면 침수 세례를 받기 전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_____ (하)고 _____ 해야 함
7. 누가복음 9:23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_____ 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_____ 것이라.”라고 하셨다.

요점 확인하기

1. 요한복음 8:31-32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_____ 에 거하면 참으로 내 _____ 이/가 되고 _____ 를 알게 될지니 _____ 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 요한복음 3:20-21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_____ 을/를 _____ [=행하는] _____ 은/는 빛으로 [나아]온다.”고 하셨다.
3. 계시록 2:10과 골로새서 1:22-23에 따르면 ‘_____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마침내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알림 | ‘스스로 답해 보기’와 ‘요점 확인하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물과 피라는 요소를 사용하여 죄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셨음
-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 속에 잠겨 세례를 받아야 함
- 침수 세례는 구원 받는 데 꼭 필요함
- 침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뜻임
-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별을 받게 될 것임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지에 따라 고의로 범하는 것임
- 아기는 죄 없이 태어나므로 세례/침례를 베풀 필요가 없음. 아기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함
-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세례나 침례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고백을 해야 함
-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침수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됨
-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함
-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함

깊이 있게 알아보기

아래에 실은 자료는 이번 장에서 다룬 주제에 관해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실은 내용 가운데는 이번 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지니는 중요성

그들[=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예레미야서 31: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요한복음 12:48).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개역개정 요한복음 14:15).

☞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킹제임스흠정역 요 14:15).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14).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

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복음 전파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린도전서 1:18-21).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1. 예레미야서 31:34에 따르면 죄를 용서받는다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2. 고린도전서 1:18-21에 따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예, 아니오)
3. 요한복음 12:48에 따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인가? (예, 아니오)
4.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15과 요한복음 15:13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하리라고 하셨는가? (예, 아니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니는 중요성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로마서 3:24-26).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분 안으로] ¹⁾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¹⁾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죽으심 안으로] ¹⁾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로마서 6:3-5).

1) 헬[라어], 또는 침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에베소서 1:7).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개역개정 히브리서 9:12-14).

☞ [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 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킹제임스흠정역 히 9:13-14).

그들이[=네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계시록 5:9).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5. 마태복음 26:28과 에베소서 1:7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피를 흘리신 결과 우리가 죄 사함, 곧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예, 아니오)
6. 로마서 3:24-26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즉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가)? (예, 아니오)
7. 예수님께서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보혈을 흘리며 숨을 거두셨다. 로마서 6:3-5의 가르침에 따르면 침수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즉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던 바로 그 곳에 있게 되는가? (예, 아니오)
8. 히브리서 9:12-14의 가르침에 따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9. 계시록 5:9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되사셨는가? (예, 아니오)



침수 세례가 지니는 중요성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개역개정 사도행전 2:37-38).

1) 헬[라어], 또는 침례

☞ [지]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킹제임스흠정역 행 2:38).

[간수가] 그들을[=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1)세례를 받[으니라] (사도행전 16:30-33).

[아나니아가 나 바울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1)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2:16).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분 안으로] 1)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라디아서 3:27).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1)세례도 하나[니라] (개역개정 에베소서 4:4-5).

☞ [지]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1)세례도 하나[입니다] (새번역 엡 4:4-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25-26).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1)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로새서 2:11-12).

1) ㉠ 또는 ‘침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공휟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도서 3:4-7).

세례, 또는 침례에 관하여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개역개정 베드로전서 3:21).

☞ ☞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새번역 벵전 3:21).

1) ① 또는 '침례'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 사도행전 2:37에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를 들은 청중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38절에 나온다. 베드로는 _____ 하고 _____ 를 받으라고 했다.
- 사도행전 16:30에서 빌립보 간수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 물었다. 사도행전 16:33에 보면, 그러한 질문을 했던 빌립보 간수와 가족 모두가 곧 _____ 을/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 갈라디아서 3:27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_____ 으로 [침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_____ 된다.
- 에베소서 4:4에서 바울이 들려준 말에 따르면 오늘날에 존재하는 세례/침례는 몇 가지인가? _____ 가지
- 에베소서 5:25-26에 나오는 ‘물로 씻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_____
- 골로새서 2:12에 따르면,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몸 전체가 감기는 침수가 아닌 물을 붓거나 뿌리는 의식을 통해 우리 몸이 ‘장사’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 디도서 3:4-5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중생의 씻음’, 곧 거듭나게 씻어주시심을 통해 구원하신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 가리키는 것은? _____
- 베드로는 무엇이 ‘지금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나(새번역 베드로전서 3:21참조)? _____



(사람이 생각해 낸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 뜻에 따른 행위’의 중요성

하나님이 그들[=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10).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20-21).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로마서 3:20).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라디아서 2:16).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8-10).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인자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거듭나게 씻어주시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도서 3:4-7).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개역개정 야고보서 2:24).

☞ ☞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킹제임스흠정역 약 2:24).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 요나서 3:10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를 ‘실제로’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한 결정을 내리실 때 우리 행위가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가? (예, 아니오)

19. 요한복음 3:20-21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행위는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인가? (예, 아니오)
20. 로마서 3:20에 따르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21. ‘율법의 행위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16의 가르침인가? (예, 아니오)
22.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에베소서 2:9의 가르침인가? (예, 아니오)
23. 에베소서 2:10에 따르면, 행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도 있는가? (예, 아니오)
24. 디도서 3:4-5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는가? (예, 아니오)
25. 야고보서 2:24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가르치는가? (예, 아니오)
26.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행위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종류의 행위’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 (예, 아니오)
27. 두 가지 종류의 행위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28. 두 가지 종류의 행위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뜻에 따른 행위’—곧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바—를 실천에 옮기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 아니오)



침수 세례를 통해 누리는 복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1)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중간 생략)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개역개정 사도행전 2:40-41, 47).
1) 헬[라이어], 또는 침례

☞ ☞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킹제임스흠정역행 2:47).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1)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1)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분 안으로] 1)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6:3-4).

1) 헬, 또는 침례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에베소서 1:3).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2:10).

되새겨 가며 깊이 있게 알아보기

29. 사도행전 2:40-41과 47절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침수] 세례 받은 사람을 ‘구원 받는’ 사람의 무리, 곧 교회에 더하시는가? (예, 아니오)
30. 에베소서 1:3에 따르면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_____
31. 디모데후서 2:10에 따르면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32.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영적인 복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아니오)
33. 로마서 6:3-4에 따르면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_____
34.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으신 분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 침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신령한 복과 구원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림 | ‘깊이 있게 알아보기’ 답안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1장 진 리

진리란 무엇인가?

1. 153,000
2. 많음
3. 1) 아니오
2) 예
3) 하나님[아버지], 뜻, 행
4. 예
5. 진리
6. 의롭지 못한 행위, 그릇된 종교적 관행, 전통
7. 1) [그리스도] 예수님
2) 아니오
8. 예
9. 예
10. 진리
11. 잘못
12. 아니오



제2장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자연
2. 핑계

120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 답 안

3. 지적, 설계자
4. 최고, 건축자
5. 나무, 자연
6. 아니오
7. 아니오
8. 아니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아니오
2. 아니오
3. [성]경
4. 예
5. 성경[책]
6. 하나님, 숨, 불어넣으셨다
7. 성령[님]
8. 아니오

하나님에 관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좋은 소식
2. 예
3. 아니오
4. 회개
5. 멀리
6. 사랑
7. 회개
8. 예
9. 아니오
10. 예
11. 아니오
12. 예

제2장 되짚어 보기 스스로 답해 보기

1. 예

2. 하나님
3. 심판대
4. 예

요점 확인하기

1. 아니오
2. 아니오
3. 예

깊이 있게 알아보기

1. 예
2. 예
3. [여호와/야웨/주] 하나님
4. 우주, 만물
5. 만물
6. 예
7. 예
8. 마음
9. 만물
10. 결산
11. 없다
12. 말씀, 명령
13. 다[=모두]
14. 아니오
15. 전능
16. 용납, 못한다
17. 피(避)
18. 예
19. 아니오
20. 아니오
21. 자비, 긍휼
22. 예
23. 좋, 은사, 온전, 선물
24. 예
25. 사랑



제3장 신앙에서의 권위

권위란 무엇인가?

1. 출처
2. 예
3. 명령, 결정
4. 예
5. 아니오
6. 예

신앙과 관련된 권위는 누구에게(혹은 어디에) 있는가?

1. 예
2. 예
3. 예
4. 예
5.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나님)
6. 교회

신앙 관련 권위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1. 아니오
2. 아들
3. 예
4. 예
5. 기록
6. 성령
7. 그리스도, 법
8. 규정집
9. 예
10. 그리스도(예수님)

11. 예
12. 영, 생명

오늘날에는 신앙 관련 권위에 표준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가?

1. 예
2. 예
3. 아니오
4. 생명, 경건
5. 아니오
6. 모든
7. 아니오
8. 저주
9. 단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어떻게 다른가?

1. 예
2. 우리, 교훈
3. 완전
4. 새 언약
5. 없어져 가는
6. 구속력/효력, 율(법)
7. 몽학/훈육 선생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13. 권위/권세, 기록

제3장 되짚어 보기
스스로 답해 보기

1. 모든
2. 기록
3. 생명, 경건

요점 확인하기

1. 아니오
2. 아니오
3. 말씀

깊이 있게 알아보기

1. 진실
2. 혀
3. 빛, 깨닫게
4. 예
5. 아니오
6. 진리
7. 예
8. 거짓말
9. 감동, 말한
10. 예
11. 아니오
12. 사망(죽음)
13. 아니오
14. 아니오
15. 예
16. 성경, 상고
17. 세대, 하나님
18. 예
19.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20. 지혜로운, 어리석은
21. 예
22. 진리
23. 자유
24. 예



제4장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1. 부르심, 받
2. 예
3. 예
4. 예
5. 예
6. 세례/침례, 죄 사함
7. 구원
8. 구원
9. 예
10. 하나님, 집, 집, 교회
11. 예
12. 산 돌
13. 1) 예수님(그리스도)
2) 예수님(그리스도)
3) 들음, 믿음, 회개, 고백, 침수 세례

교회는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1. 아니오
2. 예
3. 교회, 영원, 예정
4. 아니오
5. 예
6. 왕, 나라(교회)
7. 예
8. 그의 몸
9. 예
10. 아니오

11. 하나의 교회
12. 아니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1. 아니오
2. 아니오
3. 분쟁, 합하라
4. 예
5. 다른 이름
6. 하나
7. 예
8. 예
9. 예

제4장 되짚어 보기
스스로 답해 보기

1. 내
2. 구원
3. 아니오

요점 확인하기

1. 아니오
2. 하나
3. 1) 범세계적(에베소서 5:25).
2) 개별적(히브리서 2:12에서 보듯, '교회/회중 가운데서'라고 할 때)

깊이 있게 알아보기

1. 예수님(그리스도)
2. 예수님(그리스도)
3. 예
4. 교회
5. 예
6. 알린, 나타내신, 정, 드러
7. 예수님(그리스도)
8. 십/안식

9. 예
10. 아니오
11. 그리스도인
12. 사망(죽음), 영생
13. 그리스도(예수님)
14. 아니오
15. 생명, 관/면류관/왕관



제5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웠나?

1. 교회
2. 예
3. 1) 예수님(그리스도)
2) 예수님(그리스도)
4. 머리, 만물
5. 하늘, 땅, 모든
6. 예
7. 아니오
8. 예
9. 예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 영원토록
2. 1) 예
2) 아니오
3) 예
3. 1) 장로/감독
2) 예
3) 예
4) 예
5) 아니오

4. 예
5. 아니오
6. 예
7. 1) 하나님, 말씀(성경)
2) 예
8. 예
9. 기도
10. 강론(말씀을 전/전파/선포/설교)
11. 연보[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현금'보다 더 권장할 만한 표현임-옮긴이]
12. 떡, 떼
13. 노래
14. 아니오
15. 음악
16. 예
17. 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가?

1. 예
2. 전통(유전)
3. 따라
4. 사귀지
5. 예
6. 더, 빼

제5장 되짚어 보기 스스로 답해 보기

1. 진리
2. 성전
3. 그리스도인

요점 확인하기

1. 그리스도(예수님)
2. 특징
3. 예

깊이 있게 알아보기

1. 아니오
2. 예
3. 하나님, 나라(왕국)
4. 나라(교회)
5. 예
6. 아니오
7. 그리스도인(들)
8. 예
9. 예
10. 성도(들)
11. 그리스도인(들)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18. 영, 진리
19. 예
20. 예
21. 언, 못 언
22. 예
23. 계속(항상 힘써)
24. 예
25. 수입(이를 얻은/형통하게 하신 바)
26. 즐겨 내는(기쁜 마음으로 내는)
27. 아니오
28. 주[님]의 죽으심(예수님의 죽음)
29. 마음
30. 마음
31. 많, 적
32. 예
33. 사망(죽음), 생명
34. 화평, 세우
35. 예
36. 예

37. 큰
38. 아니오
39. 하나님(아버지)
40. 예
41. 이리저리
42. 말씀
43. 가르치는
44. 구원
45. 교만, 아무것도
46. 바른 교훈
47. 부패하지 아니함, 신중함, 성실함, 건전한 말
48. 아니오
49. 한
50. 그리스도 예수
51. 예
52. 영원, 기업(유업/상속)
53. 예수 그리스도
54. 죄



제6장 세례/침례

세례/침례란 무엇인가?

1. 정결
2. 예 내려
3. 예
4. 예
5. 아니오
6. 아니오
7. 잠기다
8. 침수 욕조

세례/침례를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1. 물
2. 구원, 세례/침례
3. 피
4. 물
5. 피
6. 의롭다
7. 무죄
8. 피, 물, 의롭다고
9. 믿음, 만
- 10.행
- 11.순종
- 12.그리스도, 복음
- 13.예
- 14.하나님, 복음, 순종
- 15.아니오
- 16.침례(세례)
- 17.사함(용서)
- 18.물
- 19.침례(세례)
- 20.구원
- 21.예
- 22.침례(세례)
- 23.몸

세례/침례는 누가 받는 것인가?

1. 믿, 침례(세례)
2. 예
3. 자(子)
4. 들음
5. 회개
6. 아니오
7. 죄
8. 시인(고백)
9. 예
- 10.아니오

- 11.아니오
- 12.아니오

나는 성경의 가르침 대로 세례/침례를 받았나?

1. 모든, 침례(세례)
2. 의롭다, 마음, 속량
3. 하나님, 권속(몸, 교회, 나라, 왕국)
4. 깨끗
5. 예
6. 1) 들음
2) 믿음
3) 회개함
4) 시인함(고백함)
5) 침례(세례)
6) 충성
7. 자유

**제6장 되짚어 보기
스스로 답해 보기**

1. 물
2. 아니오
3. 본(틀)
4. 침례(세례), 그리스도
5. 아니오
6. 믿, 회개
7. 부인, 따를

요점 확인하기

1. 말, 제자(들), 진리, 진리
2. 진리, 따르는, 사람/자
3. 죽도록

깊이 있게 알아보기

1. 예
2. 예

3. 아니오
4. 예
5. 예
6. 예
7. 예
8. 아니오
9. 예
- 10.회개, 침례(세례)
- 11.침례(세례)
- 12.안, 옷 입게
- 13.한
- 14.침례(세례)
- 15.아니오
- 16.침례(세례)
- 17.침례(세례)
- 18.예
- 19.예
- 20.아니오
- 21.아니오
- 22.아니오
- 23.예
- 24.아니오
- 25.예
- 26.예
- 27.예
- 28.예
- 29.예
- 30.그리스도 안에
- 31.그리스도 예수 안에
- 32.아니오
- 33.침례(세례)



값 6,000원



WORLD VIDEO BIBLE SCHOOL®
Serving the Church since 1986

www.wvbs.org

ISBN 978-0-9827455-6-4



9 780982 745564